FEB 16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58 1983년 2월 16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February 16,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정식재판 3월29일 상오 10시

박씨등 4명 법정출두

멘델·그린씨를 변호인으로 선정

외국인을 미국에 불법입국시킨 혐의로 입건된 박인순, 육후현, 최성태씨등 교민 3명이 15일 상오 10시 온타리오주 지방법원 제26호 법정에 출두, W.B. 로스 판사로부터 오는 3월29일 상오 10시 정식재판에 출두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날 로스판사는 이들 교민 3명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된 캐네디언 스캇트·맥린씨의 신분과 변호사 선정여부를 확인한후 이같이 명령했다.

재판정에 출두한 박씨등 교민 3명은 모두 멘델·그린씨를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재판관에게 밝혔다. 멘델·그린씨는 관록있는 이민사건 전문변호사이다.

재판관은 이들의 신분확인에 이어 검사의 논지요약을 설명듣고 변호인 선정및 통역 필요성여부를 확인한 뒤 재판날자를 정했다. 이날 재판은 약 10분만에 끝났다.

판사 로스씨는 아직 변호사를 선정치 못한 스캇트·맥린씨에 오스굿·홀에 가서 이민전문 변호사 명단을 얻어 변호사를 선정할 것을 권고하고, 법정서기에게 차기 재판까지 박씨등 3명의 교민을 위한 통역을 주선하도록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는 연방경찰(RCMP) 수사관 존·콕스씨도 참석했다.

한편 변호를 맡은 멘델·그린 변호사는 15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박씨등은 반증이 있으므로 연방경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방경찰이 기소장에 "…국인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려 모의한 혐의(Conspiracy of Smuggling Aliens to United States)"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이들은 "작년 5월부터 금년 2월 사이에 토론토와 미국 뉴욕주에서 6~7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국이민관의 수사를 회피하려 모의한 혐의"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한 존·테이트 연방경찰 이민담당검사는 15일 "일부에서 뭐라고 주장하건 이들이 한국여인들을 미국으로 보낼 때 「적절한 합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테이트 검사는 이어 이들이 재판결과 이같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형량은 징역 2년에 벌금이라고 말했다.

이두복 의전관 오타와 공사로

(서울15일=연합)외무부는 14일자로 이두복 의전관을 최근 라이베리아대사로 영전된 주캐나다 대사관 이원홍공사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신임 이두복 공사는 3월말까지 현지에 부임하게 될것이라고 주캐나다 대사관측이 15일 밝혔다.

또한 현재 공석중인 대사관 공보관도 3월말경까지는 충원될 것으로 대사관측은 전망했다.

「주재원과 교민과의 친선대화의 밤」

18일 한인회관…새한인회장단 첫사업

장순채 회장이 이끄는 신임 한인회집행부의 첫 사업이자 과거에 없었던 "이색적인" 모임인 「주재원과 교민과의 친선대화의 밤」 행사가 18일 한인회관(20 Mobile Drive)에서 열린다.

주최측에 의하면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모임에는 토론토총영사관, 무역진흥공사, 한국전 ㅣ, 각은행, 주재상사 등의 직원 일동과 한인회 집행부 전원, 교민 각단체장, 신문발행인등이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익히며 대화를 나눈다.

토론토에는 외환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등 3개은행과 KAL, 현대종합, 현대자동차, 국제상사, 금호실업, 두산, 삼성등 상사들이 주재하고 있다.

이기훈 부회장은 15일 이미 초청장이 92명에게 발송되었다고 밝히면서 동부인 초청이기 때문에 적어도 150여명은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부회장은 이어 집행부에서는 이날의 대화의 모임을 위해 간단한 칵테일과 송편·인절미등 음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장회장은 「그동안 같이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 교민들이 이들 주재공관원및 상사직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면서 이들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모임을 주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대화의 밤」에는 장회장, 이상훈 총영사, 일부 기관장들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라고.

김씨 사정청취 난항 일본 수사당국 곤란

(도쿄)「김대중납치사건」에 관련된 김씨에 대한 일본수사당국의 사정청취가 벽에 부딪치고 있다.

멘·히메오 사민연맹 대표를 파견, 미국체류중인 김대중씨와의 접촉결과를 분석한 일본정부는 김씨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 소식을 전달받은 김씨도 즉각 "사정청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으므로 청취실현이 어렵게 됐다.

일본정부가 김씨의 사정청취 방침을 결정한 것은 "사건이 수사중에 있으며, 피해자의 사정청취를 하는 것은 수사의 당연한 길"이라는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브라질의 수도 리오·데·자네이로의 연례사육제 퍼레이드에서 밤새워 춤추는 삼바 무희.

뉴욕교포60명 보석으로석방

"수사관들이 뇌물주도록 은근히 유인"

교포사회선 수치로 간주 淨化 운동

(뉴욕지사발)

뇌물증여, 불법체류혐의등으로 이민국·연방검찰·뉴욕시 경찰국의 합동수사반에 의해 검거된 교포70여명중의 60여명이 10일 오후 구속적부심사후 보석금을 걸고 일단 귀가했다.

구속적부심사결과 풀려나온 교포들의 대부분은 수사관이 총기를 휴대하고 업소에 들이닥쳐 돈을 은근히 요구해 뇌물을 증여했다고 말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뇌물증여죄성립여부가 논쟁의 쟁점으로 될것으로 보인다.

뉴욕한인회를 비롯한 교포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그동안 근면과 성실로 쌓아올린 교포사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수치로 간주 교포나이트클럽과 맛사지팔러에 대한 정화캠페인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종업원과 함께 9일밤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교포나이트클럽주인은 『수사관들이 술을 마시고 무조건 들이닥쳐 종업원들을 죄인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갔다』고 호소했다.

한편 존·케일리연방검사는 아직 감옥에 있는 사람중에는 다른 사람을 살해할계획을 세워 5만달러의 보석허가를 받은 한 피의자도 포함되어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또한 윌리엄·슬래터리뉴욕이민국부국장(수사담당)은 9일밤 일제검거결과 뉴욕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교포약40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구속적부심사후 일단 귀가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에)

비행사직원 매수 불법입국

뉴욕 경찰수사, 한국인 다수관련

【뉴욕지사】 뉴욕의 케네디국제공항을 통하여 들어오는 불법입국자 및 비자상태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비행사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입국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다.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나 비자상태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행사의 책임하에 다시 돌려보내도록 되어있다고 한 관계자는 밝히며 불법입국을 위해 비행사직원에게 뇌물을 준 사람들에는 상당수의 한국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한국계 경찰1명을 불법입국자로 위장시켜 비행사 직원에게 뇌물을 주도록하는 함정수사를 편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행사 직원은 그 뇌물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뇌물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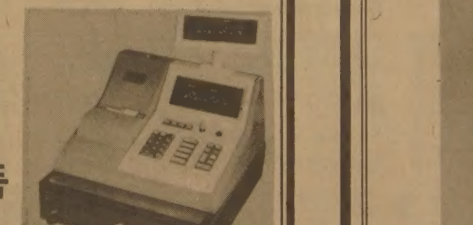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점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 귀국선물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가공공장면허소지업체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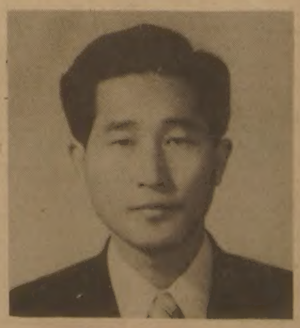
오늘의 예금금리(1/25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푸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		8%
90일	9.5%		8.5%
180일	9.5%	9.25%	8.5%
365일	9.5%	9.2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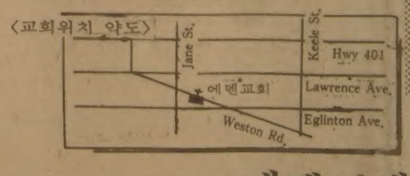


신제품
$ 395
(파나소닉제)
PAPER -SERVICE- REPAIR
(2년 보증)
각종 저울, 계산기
특별세일
안 수 일
252-7377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제1회 심령대부흥성회



강사 이 상 훈 목사
(휴스톤서울침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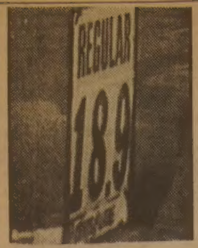


주제 : 그리스도안에 새사람
부흥성회 일정표
● 2월25일(금) 밤 7시30분
하나님의 말씀(시편19:7-11)
● 2월26일(토) 새벽 6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빌4:7-8)
● 2월26일(토) 낮11시30분
기도는 표적과 기사를(행4:25-31)
● 2월26일(토) 밤 7시30분
다른 보혜사(요한복음14:16)
● 2월27일(일) 오후 2시
믿음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9:27-31)
● 2월27일(일) 밤 7시30분
성령충만(에베소5:18)
주소 : 1272 Weston Rd. Toronto
☎ : (교회) 242-4964 (목사관) 665-2866
에덴침례교회 담임목사 정 태 진

Camelot Creations
(Div. of Sunglass Promotions Inc.)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 매 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 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Available 15% Discount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5125 Steeles Avenue West
Weston, Ontario
M9L 1R5
Bus: (416) 742-6336
742-6339
RAVI RAWANA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개소린가격 연일 하락

「온」주 일부지역 리터당 18.9¢

(팔머스톤)「온타리오」주의 자동차 개솔린값이 폭락하는 가운데 14일 일부지역에서는 리터당 20센트 이하로까지 하락했다.

온타리오주 팔머스톤(Palmerston)에서는 19.4센트로 떨어졌으며 런던에서는 무려 18.9센트로 급락했다.

온타리오주 서드베리(Sudbury)에서는 리터당 28.4센트로 거래되어 팔머스톤이나 런던보다는 높지만 2주전에 44센트가 넘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셈이다.

이같은 기형적인 폭락현상은 「온타리오」주 전역의 정유보관 탱크에 재고가 넘치고 있기 때문이며, 정유회사 간부는 「이와같은 극심한 개솔린전쟁은 15년 내에 처음 보았다」고 개탄했다.

지난 주말 팔머스톤에 있는 주유소 4개소는 개솔린을 사려 인근 각지에서 기름차를 끌고 몰려와서 큰 양철통으로 사가느라고 장사진을 이루었으며 심한 때에는 무려 4시간이나 기다려야 기름을 사가기도 했다.

27개 주유소망중 팔머스톤에 1개소와 런던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캥고·오일(Cango Oil)사의 고든·싱크레어 사장은 "이 가격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낼수 없을 정도」라면서 팔머스톤에서 갤론당 64.1센트, 런던에서는 72센트를 손해보고 있다고 울상이었다.

GM·도요다 합작

소형승용차 새로 개발

(디트로이트)사상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이 합작으로 승용차를 생산하게 될 것같다.

세계의 최대 자동차제조회사인 GM사와 세계 3위인 일본의 도요다(Toyota)는 15일 성명을 발표, 두 회사는 내년도 하반부터 도요다가 디자인한 소형승용차를 미국에서 연 20만대 생산한다고 밝혔다.

GM사측은 양회사는 합작투자에 대해 이미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면서 최종서명은 17일 GM의 프레몬트(Fremont)공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생산 계약은 12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합작투자회사에서 생산되는 소형차는 앞바퀴추진형(front—wheel—drive model)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모델이 될것으로, GM의 소형차인 쉐벳(Chevette)의 대체품이 될것으로 알려졌다.

이 새차량은 쉐보레·딜러(Chevrolet dealers)망을 통해 판매될 것이라고 GM측은 밝혔다.

영화 「Muddy River」인기

칼톤·씨네마에서 상영중

토론토 칼톤·씨네마에서 최근 개봉되어 상영되고 있는 일본영화 "흙탕물 강"(Muddy River)이 강한 감동과 함께 산뜻하고 매끄러운 영화라는 평을 듣고 있다.

오스카감독상 후보로 지명된 오구리·고헤이(37세)씨의 작품인 이 영화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최고조의 감명을 주기에 충분한 영화라는 평이 있다.

작년도 토론토 필림·훼스티발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부문 경쟁에서 탈락된 "메피스토"(Mephisto)와 같은 부류의 영화로 전통에 얽매인 인습과 이에 대한 반작용, 복잡한 인간성격의 내면과 인간조건의 이해를 다룬 작품이다.

미야모도·메루의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2차대전 패전후 경기불황복구에 안간힘을 쓸때 한국전의 발발로 호경기를 누리게 되는 상황의 서민생활의 단면을 보게 된다.

9살의 주인공 노부오군을 통해 새로운 세계(부모밖에서의 행복, 친구, 생의 의문, 성, 비통, 어려움가운데서의 생활할 수 있는 힘, 부모의 책임등)를 배우게 된다.

이 영화를 통해 또한편으로는 세상을 보는 눈, 기성세대를 보는 생각, 조롱, 공격적 언사, 농끝거리는 태도등의 근원도 볼 수 있다고 영화 평론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 영화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볼 수 있고 새로운 세대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흥의 영화이다.

◆「Muddy River」의 주인공 노부오군이 호기심으로 성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모국어 자금지원 토의

21일 스카보로 교육청서

모국어교육 학교에게 자금을 주지 않는 스카보로 교육청은 이 문제에 관한 토의를 오는 21일(월) 하오 7시 스카보로·시빅센터(맥코완로드×Hwy 401 남쪽)에서 갖는다.

이 토의에는 동불로요학교, 샛별한글학교등 스카보로내 한글학교 대표등도 참석, 자금지원을 주장할 예정이다.

메트로·토론토 지역내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민자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재정지원한다.

스카보로교육청은 이제까지 "시민이 낸 세금을 어째서 이민자 자녀에게 쓰느냐?"는 사람들의 의견을 좇아 모국어교육을 외면해왔다.

한글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에 교민들이 많이 모습을 보여 모국어교육에 대한 지지도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줄 것을 요망했다.

포니가격 약 $5,700

글로브·앤드·메일 보도

(토론토15일=연합)캐나다의 전국지인 글로브·앤드·메일지는 14일 현대 포니를 소개하고 캐나다진출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포니가 일본차들과 캐나다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지는 "만약에 현대가 가격에 중점을 두어 캐나다시장 전략을 세우면 우리의 파이조각은 점점 작아질 것"이라는 캐나다 자동차수입업자협회 회장인 가와나씨의 말을 인용했다.

현대는 금년 여름 캐나다에 포니승용차를 선보일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기본가격은 약 $5,700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혈액검사는 진단도움 안돼"

미 의학회지 보도, 연간3억불 낭비

신체검사에서 흔히 처방되는 혈액검사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미국 의학회(AMA)의 최근 회지에 보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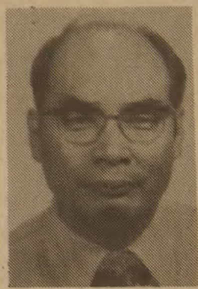
미네소타주 센트 폴-램시 메디컬센터의 유진 리취 의사와 뉴 올린스의 채리티 하스피탈의 윌리엄 톡 의사가 진단 케이스를 분석하여 보고한 이자료에 의하면 일반 진단으로 나타나지 않는 병이 혈액검사로 발견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통산 DLC라고 알려진 혈액검사는 백혈구의 비율을 계산하여 환자의 질병 유무를 판단케 한다는 것인데 「류케미아」외에는 어떤 질환에 걸렸는지를 DLC만으로는 알수 없다는 것이다.

흔히 진찰시에 10달러정도의 DLC를 처방하여 연간 1억3천4백만명이 이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중 불필요한 혈액검사로 연간 3억3천5백만달러가 낭비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伊독재자 무쏠리니孫女…美女무쏠리니

▲관능적인 또다른 이탈리아 미인 알레싼드라·무쏠리디(20). 알레싼드라의 모친은 소피아·로렌과 자매이며 할아버지는 독재자였던 베니또·무쏠리니. 알레산드라와 소피아는 미국TV영화「The Rose Tattoo」에 함께 출연하게 된다.



◆지휘자 박재훈씨

한인합창단 "합창"공연

26, 27일 메세홀서 노스욕·심포니와

한인합창단(지휘 박재훈·단장 문남귀)은 다른 2개 합창단과 함께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메씨홀에서 노스·욕교향악단과 협연으로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합창〉을 공연한다.

공연시각은 각각 저녁 8:00, 지휘는 노스욕교향악단 지휘자인 Dr. William McCanly가 담당한다.

이 공연에는 한인합창단원 60명을 포함, 총 160명의 합창단원이 출연하며 독창자로는 소프라노의 자넷·스미스, 콘트랄토 캐서린·로빈, 테너의 글린·에반스, 바스의 존·도닝톤이다.

티켓은 $9.50씩이며 구입은 메씨·홀 박스·오피스나 전화 363—7301로 가능하다.

한인합창단의 차기공연은 오는 5월28일 있게될 기아민들을 위한 자선음악회이다.

교 민 동 정

◆정인기(전 한국노인회장)=지난 12일 막내아들 수현군의 결혼식을 치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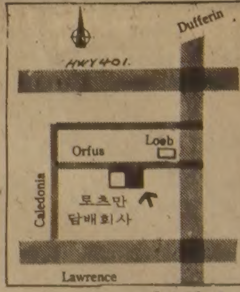
도매상
DOMINION SMALL WARES

화장이전 OPENING 스페샬

ㅁ2월14일부터 3월12일까지

CASH & CARRY

47 Orfus Rd.
(도매상 Loeb근처).



1. BATTERIES

* Eveready

"AA"	(24)	1015 BP	$26.40 (110)
"C"	(24)	1035 BP	19.92 (83)
"D"	(24)	1050 BP	21.60 (90)
9 Volt	(24)	216 BP	18.24 (76)

* Duracell

"AA"	(24)	MN 1500-2	43.20 (180)
"C"	(24)	MN 1400-2	52.08 (217)
"D"	(24)	MN 1300-2	54.48 (227)
9 Volt	(24)	MN 1604-1	47.76 (199)

2. LIGHTERS

* Bic Lighters (48s) 33.60 (70)
* Scripto Lighters (48) 35.04 (73)

3. PARKER PENS

* Parker stainless Jotter set	16.50	7.50
* Jotter set	11.50	5.00
* Reg. Jotter BP or boxed	5.00	2.25
* RBI Rolling ball	4.50	2.25
* Parker 50 Matte Brn	25.00	7.00

4. PLANET PLAYING CARDS 16.28 (dz.)

5. PAPER BAGS

Grocery Bags

2. lb	1000	8.75
3 lb	1000	10.09
5 lb	1000	13.15
6 lb	1000	14.05
7 lb	1000	15.19
8 lb	1000	16.25
10 lb	1000	18.19
12 lb	1000	22.50
14 lb	1000	24.50
20 lb	1000	28.89

Carry out sacks

12x7x17	500	23.10
12x7x17	400	22.45

*Notion Bag

5x7	1000	5.59
7x10	1000	9.49
9x12	1000	13.45
11x14	1000	20.39
13x16	1000	24.59

Minimum order 1000

6. TOWELS

* White Swan towels (18x2's) 16.79

7. DRUGS & ETC.

* Colgate toothpaste 100 ml	1.15
* Palmolive dish-washer soap 500 ml	1.19
* Head & Shoulders tube tube 100 ml	2.12 net
150 ml	2.85 net
* Dainty bol Toilet bowl cleaner 12 oz	11.40 dz
* Shoe Polish Kiwi paste	8.64 dz

8. FUSES

15 amp reg fuse	(25/4's)	18.75 box
20 " " "	(50/2's)	45.00 box
25 " " "	(50/2's)	45.00 box
30 " " "	(50/2's)	45.00 box

Minimum order 1 case

9. CONFECTIONARY

* Oh Henry's (Lowney's) Reg. Chocolate bar	36x40¢	9.39
* Rowntree Reg. Chocolate bar	36x40¢	9.49
* Y & S (Hershey) Twizzler @ .5¢ Twizzler (60 ct)		1.59 (c/s)
Red & Black		1.69 box
@ 10¢ Twizzler (48 ct)		2.55 (c/s)
Red & Black		2.69 box
* Peek Freans plain cookies	12x145¢	8.99
* Cadbury (Neilson) thick bar	36x55	12.99
* Tic Tac	24x35	5.15
* Lifesavers candy	24x30	4.55
* Hershey Choc. bar	36x40	9.49
* NHL Hockey card	48x25	8.19
* Y & S Nibs & twizzlers	24x40	5.90
* Maynard Wine Gum	24x30	3.99
* Callard & Bowsers Roll candy	24x40	5.55
* Dare peg top candy	12x129	8.88
* Fruitella candy	36x25	5.09
* Mentos mint	24x25	3.39

ALL THE STATIONARY & TOYS
40% + 10% OFF RETAIL

AND MANY MORE

200불이상 구입시
경품권을 드립니다。
TV Set(2 Set)
($300 상당) ㅁ추첨일 : 3월12일

가장 크고, 가장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도매상으로서
항상 친절하게 고객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DELIVERY SERVICE
789-7214 매니저 김 근 래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性病」이 導火線

뉴욕교포들은 10일 저녁 TV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맥파이어뉴욕시경찰국장과 슬래틀리이민국수사반장이 합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손잡이 작전」 일망타진내용은 다름아닌 「어글리 코리언」에 관한 것이었다. 그 혐의내용은 영주권획득을 위한 뇌물증여, 맛사지팔러 인신매매, 마약소지, 불법체류등으로 되어있어 뉴스를 보고 있던 교포들의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한다. 마치 코리언의 이미지가 「뇌물」과 「맛사지팔러」가 대명사인 것처럼 인식되어 한인커뮤니티 전체가 실의에 빠져 있다.

2백70명이나 되는 수사관이 동원된 「손잡이 작전」의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존·마틴연방검사(가운데)가 10일상오 연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인유흥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욕지사-UPI특별판송〉

한인상대 전문변호사가"잘봐달라"수차례 뇌물
"영주권 앞세운 人身매매 아니냐"의심하기 시작

사건은 한국인들을 주로 상대로한 미국인 이민변호사가 이민국직원에게 『잘봐달라』고 돈을 전네기 시작한데서 터졌다. 말썽을 일으킨 장본인은 롤렌드변호사—

마틴검사가 발표한 기소장에 의하면 변호사롤렌드씨는 작년5월 로크랜드카운티 스토니포인트에있는 「빌라빌라」식당에서 위장이민국직원에게 고객인 미스김의 남자형제를 사기결혼을 통해 미국에 입국시켜 달라고 1천5백달러를 전달했으며 다시 8월 맨하탄의 「실버펠리스」식당에서 3천달러를 주면서 2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롤렌드변호사는 그후 다시 4건의 영주권취득, 추방연기부탁, 3개의 I-94폼을 돈을 주며 부탁했다.

수사관은 변호사와의 뇌물수수에 대한 대화를 녹음 증거로 재시했다.

증거로 제시된 녹음기록에 의하면 롤렌드변호사는 수사관과 밀담하면서 자기자신의 고객 미스김의 케이스는 지난번 뉴저지 뉴왁에서 일어난 글래스만변호사의 위장결혼사건과 같은 방식임을 인정했다. 롤렌드변호사는 현재 1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된것으로 알려졌으며 로크랜드에 있던 사무실은 다른 변호사가 일하고있다.

연방이민국은 교포 영주권을 둘러싼 이와같은 케이스가 뉴왁에서도 일어났기때문에 배후에 큰 한국인 조직이 있어 이들이 인신매매를 하면서 변호사에게 영주권을 계속 부탁하는것이 아닌가 의심하게된 것이다.

이번 소탕작전에 맛사지팔러가 포함된것은 얼마전 뉴욕시보건국이 한국인이 경영하는 맛사지팔러에서 성병이 유행한다고 발표한데서 비롯된것같다.

보건국은 이 성병이 신종으로 페니실린으로도 치료가 되지않는 악성이라고까지 밝혀 뉴욕시민들은 『그와같은 업소를 왜 방치해두느냐』고 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영주권에 보건관계까지 합쳐져 문제가 커진것이며 불법체류자단속은 두 사건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급습과정에서 난폭했었다는 소문은 앞으로를 위해서도 규명되어야할 점인것같다. 더우기 사건당일 나이트클럽에 있던 손님(교포)들까지 일일히 조사해 맨하탄가의 한인유흥업소에 손님의 발길이 줄어드는등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71>

金聖鍾 작

이상한 女人 ⑯

불타는 女子의 욕정앞에 두봉은 끝내…

그는 수지의 따귀를 후려갈겼다.
그녀는 뺨을 감싸쥐면서 벽에기대섰다. 그녀의 눈에는 전혀 저항감이 보이지 않았다.
『맘대로 때려보세요. 얼마든지 맞아줄테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손이 다시 한번 휘하고 날았다.
『자, 또 때려요.』
그녀는 턱을 내밀었다.
두봉은 씩씩거리다가 손을 내렸다.
『때릴 가치도 없어.』
『그래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
그는 여자를 노려보면서 두려운듯이 소리쳤다. 그녀는 듣지 않고 다가왔다. 벽까지 밀린 그는 여자가 몸을 밀어붙이는 대로 가만있었다.
여자는 [illegible] 가슴으로 그를 밀었다. 그러다가 두 손을 올려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굳어있던 그 몸이 녹으면서 차츰 더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취하는 것 같았다.
『옷을 벗어요.』
여자가 속삭였다.
그는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여자가 시키는대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다.
이윽고 옷을 다 벗고난 그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여자의 허리통을 어안았다.
그는 난파된 배에서 떨어져 나와 거친 파도 속을 살기위해 헤엄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여자는 성난 파도 같았다. 그녀가 내지르는 소리는 마치 파도소리 같았고 그녀의 허우적거리는 팔다리는 높이일어서는 파도 같았다.
그는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대로 영원히 눈을 감았으면했다.
숨이 가빠왔다. 그는 바닥을 몇번씩이나 삼켰다. 여자가 튼튼한두다리로 그를 꽉 죄었다. 그는 통증을 느꼈다.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쳤다. 그는 머리가 혼미해졌다.
여자가 팔다리를 풀어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을 때에도 그는 정신을 못차린채 헐떡거리고있었다.
그는 엎드린채 이불 위에 얼굴을 묻었다.
수지가 그의 등판에 끈적거리는 땀을 문대면서 말했다.
『수고했어요. 보기보다는 근사해요.』
『그 물건이란 건 뭐지?』
『알고 싶으세요?』
『물론. 말하지 않으면 열쇠를주지 않겠어.』
그녀의 손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헤로인…』
『마약 말인가?』
그가 놀라서 고개를 쳐들었다.
『네, 그것도 6킬로나되는 거예요. 싯가로 쳐서 2천만달러…한국돈으로 1백40억이예요.』
놀란 그의 입에서는 더이상 아무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朴 男 그림

TV못보게하자 10대소년 自殺
전학학교 적응못하고「혼자생활」즐기다

〈오크리, 캘리포니아-AP〉아버지가 TV를 못보게하자 13살짜리 소년이 아버지의 권총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밝혀진바에 의하면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소외되어 등교하지않고 방에서 TV만보던 제나로·가르시아군은 지난1월26일 아버지가 TV를 압수, 못보게하자 수시간뒤에 자신의 머리를 총으로 쏘아 자살한것이다.

가르시아군은 브렌트우드의 에드나·힐·인터미디에이트스쿨로 전학온후 새 환경에 적응못하고, 또 자신의 뚱뚱한 신체에 컴플렉스를 갖고있어 자신의 방에서 TV, 비데오게임등을 즐기며 혼자만의 생활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가르시아군이 명석하고, 유능한 학생이었다고 지적했으나 새학교생활에 적응못하고 등과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하면서 등교를 안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버지가 치워버린 이TV는 가르시아군이 LA카운티학교에서 평균A학점을 받아 아버지가 선물한 것이다.

油價 인하 공식제의
야마니 사우디石油相

〈리야드-AP·UPI종합〉사우디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창설22년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유가인하를 제안했다.

야마니석유상은 11일 사우디주간지 IQRA와의 회견을 통해 『세계석유시장에서 벌어지고있는 가격인하전쟁을 종식시키기위해서는 가슴아픈 일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유가인하 결정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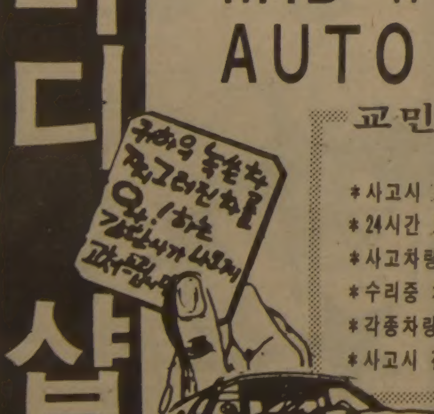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및 성화
초상화
☎:532-7907
549 BLOOR ST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의 자랑입니다
▲광고문의: 533-2361~4
▲구독신청: 533-2361

三國志 564 글·高羽榮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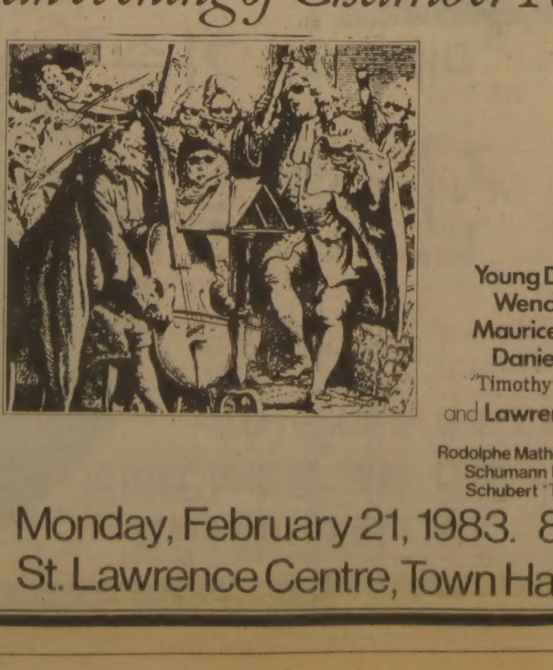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바디샵
MID WEST
AUTO BODY SHOP
교민특별할인
※차 페인팅 $250-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 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미들랜드
로렌스
260 MidWest Rd. Unit.8
(미들랜드×로렌스)
☎: 751-9280 임종민

You are invited to an evening of Chamber Music



with
Young Dae Park violin
Wendy Rose violin
Maurice Pelletier viola
Daniel Domb cello
"Timothy" Dowson bass
and **Lawrence Pitchko** piano

Rodolphe Mathieu Piano Quintett (1946)
Schumann Piano Quintett Op.44
Schubert "Trout" Quintett Op.114

Monday, February 21, 1983. 8:00 pm.
St. Lawrence Centre, Town Hall. Box Office 366-7723

醫療보장인구 47%로

保社·科技處 보고 1종醫保 16人업체까지 擴大

◇全斗煥 대통령이 보사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있다.

全南등에 示範 육아원
고급頭腦 千30명 양성

보사부는 2종(지역) 의료보험을 정착시키기위해 보험료 징수율이 평균62%로 부진한 軍威등 6개시범사업지역에대해 올해 상반기부터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키로 했다. 보사부는 11일 全斗煥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를 보고하면서 이와함께 현행7등급제인 보험료율을 15등급선으로 세분, 보험료 납부실적을 높이는한편 하반기까지 2종 의보화대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2종의보 내실화를 바탕삼아 1종의보 적용대상도 16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5인이상 사업장은 임의적용), 우리나라 의료보장 인구를 연내에 전국민의 47·2%(의료보호인구 9·5%포함)로 끌어올릴 방침임을 밝혔다.

보사부는 또 전국차원의 보건의료망을 확립하기위해 연내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 모형을 개발키로하고 그기초사업으로▲1천3백21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충원, 연내 무의면을 없애고▲보건소4 보건지소30 보건진료소 5백개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인구증가억제대책에 있어서는 의료보험분만급여·공무원수당지급등을 2자녀까지로 제한하는등 15가지 종합대책을 계속추진하며 대도시영세민 지방이주사업의 경우 종전과달리 서울·부산 2대도시에만 집중적으로 실시, 1천5백가구를 목표로 잡고 이주정착지원금도 80만원으로 인상지급키로 했다. 이주지역도 인구10만이하의 도시로 제한하고 이주영세민에한해 이달부터 무보증융자도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장애자복지를 위해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등을 관련부처와 협의, 개선해나가며 아동복지의하나로 京畿·忠南·全南등 3개도에 수용보호·영농교육을 겸한 시범육아원을 운영키로했다.

또 급성전염병을 예방하기위해 전염병예방법을 개정, 방역소독대행업을 육성하고 병원·학교등 특정장소 소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환경청은 수도권지역의 쓰레기처리난을 해소하기위해 仁川연안의 바다를 간척, 대단위 쓰레기 매립지를 마련키로하고 올해 사업비 1억원을들여 조사 역을 선정하는 한편 기본설계를 마치기로했다고 보고했다.

환경청은 또 대기오염을막기위해 저유황유 사용의무지역을 업소의경우에는 수도권지역외에 釜山·蔚山지역을추가하고 차량은 수도권, 부산이외에 大邱, 慶南北지역을 추가, 상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청은 이와함께 현재 아황산가스만 제정된 대기환경기준에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옥시단트·부유분진등 5개항목을 연내에 추가 제정하며 지역별 시간별로 소음환경기준도 제정, 단속할 방침이다.

全대통령 지시
尖端기술 獨自的 개발
原電 安全사고 방지를

全斗煥대통령은 11일 상하오 과학기술처와 보사부로부터 각각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李正五 과기처장관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각박한 국제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밖에길이 없으므로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이를소화해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을개발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하라』고 지시하고 『이것이바로 선진조국으로가는 지름길의하나』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앞으로 해외의 첨단기술도입은 기업체에만 의존할것이아니라 과기처가 외무·국방·상공등 관련부처와협조, 主導해나가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긴 안목에서 長·中·短期계획을 조직적으로 세워 인재를 길러나가는등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양성에 주력하라』고지시했다.

全대통령은 『과기처조직가운데 행정분야는 인원을 줄이고 職級도 낮추는등 간소화하고, 기술분야는 직급을 높이는등 상대적으로 質·量면에서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원자력발전소의 安全에 특히 유의해 안전사고가 없도록만전을기하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과기처산하 연구기관의 연구는 기업체들과 원활한 협조아래 경제성장에 바로 도움이되는 산연구를 해나가고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많이가도록 유도해나갈것등을 당부했다.

李正五 과학기술처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올해 과학기술정책을▲國策연구개발사업의 본격화▲高級頭腦의 양성확보▲原子力 안전기술개발 촉진▲情報産業육성▲技術用役의 자립▲과학기술의 기반확충에 두겠다고 했다.

李장관은 이를위해 향후10년간 우리가 개발해야할 목표분야별국내외전문가 2백명이 참가하는 심의회를 구성, 9개분야 1백개부문 총6백35개 핵심기술을 導出, 특별연구개발사업비 3백57억원(정부 2백20억원, 기업 1백3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원 碩·博士과정을두어 이들을통해 올해 1천30명의 고급과학두뇌를 양성확보하고해외로부터2백84명의 고급두뇌를 유치하는한편 2백50명을 先進技術 조기습득을위해 해외에서 연수토록하겠다고 했다.

李장관은 이어 原子力안전기술개발을 촉진키위해 국에너지연구소부설 原子力 안전센터의 기구와 기능을 확대하고 韓·美합동 비상훈련등 原電비상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教育공무원 6천여명 增員

국무회의는 11일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定員에관한 규정을개정, 교육공무원의정원을 6천3백69명이 늘어난 21만5천5백12명으로 책정했다.

늘어난 교원定員은▲國校 교사6백19명▲중학3천3백6명▲高校1천6백41명▲敎大44명▲專門大46명▲대학4백67명등6천1백23명이다.

이같이 교원등 교육공무원을 늘린것은▲2개의단과대학▲33개高校▲52개중학등의학교신설과 65개학과의 대학과증설및 학급증설 때문이다.

국무회의는 또 문교부직제개정안을 확정, 교육정책실장밑에 국민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조정관, 보통교육국에 幼稚교육담당관을 각각 신설키로했다.

또 국무회의는 서울시敎育감산하에 江西區와 鍾路區를 관할로하는 鍾路교육구청을 신설키로했다.

社會漫評

告示 검토…

이샤론國防相 辭任
베긴首相 겸임說 다음週에 改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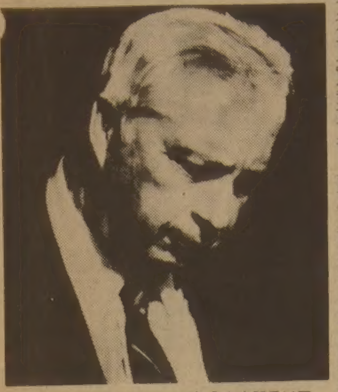
【예루살렘AP聯合=特約】 아리엘·샤론 이스라엘 국방상이 그의 사임을 촉구한 이스라엘 긴급각의의 결정을수락, 베긴수상에게 11일 사의를표명했으며 오는 14일 국방상직을 사임할것이라고 메나헴·베긴이스라엘 수상실대변인과 이스라엘 라디오방송이 11일밝혔다.

이스라엘방송은 샤론국방상의사임과함께 베긴수상이 국방상직을 겸임하게 될것이며 샤론은 국방상직을 사임하더라도 무임소장관 자격으로 계속 내각에 남게될것이라고밝혔다.

지난 4개월동안 팔레스타인 난민촌 학살사건 진상을 조사해온 3명의 査問委는 8일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샤론의 국방상사임을 촉구했으며 이스라엘 각의는 3일동안 3번에걸친 비상각의끝에 16對1로 査問委 결정을 수락, 샤론을 사임시키기로 결정한바 있다.

샤론은 지난10일 비상각의가 자신을 사임시키기로 결정했을때만해도 사임할 의사가 전혀없음을 분명히했으나 11일아침 베긴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국방상직에서 사임하기로 방침을 바꾼것으로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의회는 다음주에 샤론의 국방상사임에따른 개각을 승인할것으로 보여졌다.



◇이스라엘 각의가 10일 3人査問委보고서의 건의내용을 수락하기로 의결함에따라 불명예퇴진을 하게된 아리엘·샤론국방상이 수상관저밖에서 시위를벌인 군중들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고있다. 【예루살렘10日UPI電送=聯合】

내주 國會외무위 交叉승인등 논의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들은 11일상오 회담을갖고 각黨의 대표연설을 듣기위해 야당측이 요구해온 제1백16회 임시국회를 이달말께 여는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보지못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3黨총무들은 來週중 국회外務委를열어 정부측으로부터 나까소네(中曾根) 日本수상과 슐츠美국무장관의 訪韓결과를 보고받고 南北韓交叉승인, 日本의 한국단독유엔加入추진문제등을 다루기로 합의를 봤다.

18일 黨政정책회의

정부와 民正黨은 오는18일 民正黨중앙당사에서 올들어 두번째 黨政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금년도 施政방향및 국회운영등 현안문제에 관해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국민3役유임
副總裁 3명으로… 李鍾聲의원추가
대변인 金完泰씨, 李萬燮부총재辭意

金鍾哲국민당총재는 11일상오 黨職개편을단행, 현재 李萬燮·尹錫民부총재외에 李鍾聲전全黨대회의장을 추가 임명하여 부총재를 3명으로 늘리고 趙一濟정책위의장, 申喆均사무총장, 李東鎭원내총무등 黨3役을 전원 留任시켰다.

金총재는 당헌상 黨務위원인 재정위원장에 李成一대변인을, 대변인후임으로 金完泰 의원을 각각 임명했으며, 또 총재특별補佐役을 신설해 李聖秀(당무)金永光(정책)金鍾河의원(국회)을 각각 보좌역으로, 신설된 非常경제특별위원장에 金遺腹재정위원장을 임명했다.

金총재는 이밖에 총재비서실장에 趙炳鳳의원을 유임시키고 黨紀위원장에 趙顯相전중앙위의장을 임명하는 한편 李奉模의원(전당기위원장)과 院外의 申光澈, 李昊鐘, 韓甲洙씨를 당무위원에서 제외하고 柳凡秀씨(全北도당위원장)를 당무위원으로 임명, 현재20명인 당무위원수를 17명으로 줄였다.

한편 李萬燮부총재는 黨職개편에반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人事는 金총재가 지금까지 밝혀온 상식선에서 능력에따라 누구나 공감할수있는 타당한 인사라고 할수 없으며 당초의 말과는 거리가멀다』고 지적, 이날하오 부총재職 사퇴서를 중앙당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또 趙一濟 金鍾河 金永光 李聖秀 의원도 李부총재와 함께 당직사퇴서를 제출했으며 金遺腹의원도 黨職사퇴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국민당은 改編에따른 後遺症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李鍾聲부총재略歷=▲忠南禮山출신·59세▲서울大法大卒▲법무부총무·경리과장▲내무부차관▲내각수반경제비서관▲忠南紡績회장▲국민당전당대회의장

◇金完泰대변인=▲忠北城출신·52세▲서울大藥大卒▲韓一중학교장▲忠北도정자문위원▲대한藥師會회장▲국민당 정책위부의장▲정치훈련원장

社告

'83鳳凰盃 연날리기大會

24일 여의도 國會옆 漢江邊서

접수 14일~19일까지
初中高生를 참가환영

바람이 아무리 차가와도 봄의 숨결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봄이 아무리 멀다 해도 바람은 아직 맵기만한 계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하늘높이 연(鳶)을 띄워 새봄을 손짓하는 민속을 지켜왔습니다. 연은 새해에 거는 겨레의 꿈이고 낭만이며 연면히 이어온 우리의 얼입니다.

한국일보·日刊스포츠社는 우리민족 전래의 슬기를 되살리는 연날리기잔치를 마련합니다. 「83鳳凰盃쟁탈전국연날리기대회」는 음력 정월 열이틀날인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국회의사당옆 한강변에서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열렬한 성원과, 특히 초·중·고학생들의 많은 참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회요강

▲대회일시 : 1983년 2월24일 (목) 상오10시부터
▲장 소 : 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옆체육공원
▲종 목 : 끊어먹기및 창작연 (대연)
▲신청기간 : 2월14일부터 19일까지
▲접 수 : 한국일보社 총무국 사업부 (☎ 1472☎4161 (교) 437)
▲참 가 금 : 3천원
▲시 상 : ①끊어먹기 1·2·3위는 상장·상배및부상, 4위부터 8위까지는 상품만 시상 ②창작연 (대연) 1·2·3위는 상장·상배및 부상

한국일보·日刊스포츠

地平線

스포츠는 현대사회의 총아다. 축구는 우리나라 國技처럼 되어있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어릴때부터 축구를 즐길수가 있다. 延高戰 축구는 대학스포츠의 인기를 지금도 높이고 있으며, 해방전의 平戰, 해방후의 4도시대항 축구전은 국민들의 스포츠열기를 크게 북돋워 주었다. 축구가 우리나라 스포츠의 大衆化에 한 촉매작용을 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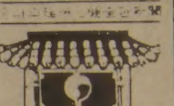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스포츠중의 하나다. 민주주의국가, 공산주의국가,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축구를 기피하지 않는다. 스포츠의 나라라고 할 수있는 미국에선 한 10년전까지만해도 축구경기를 구경하기 어려웠으나 수년전부터 비약적으로 대중속에 파고들고 있다. 오늘에는 미국의 국민학생들이 가장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인 것같다. 주말이면 남녀 국민학생들이 공원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기는것을 어디서나 쉽게 볼수있다.

▼소련, 중공, 루마니아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골프나 야구를 자본주의의 경기로 기피한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각별히 좋아하는 경기는 배구로 알려져있다. 그 수준은 세계상위급이다. 어떤 球技도 팀웍이 중요하지만, 특히 배구는 「영웅」이 유별나게 드러나지않는 단체협력경기라는 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이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경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 中共의 毛澤東이 「長征」을 끝내고 延安동굴에 칩거했을때 말뚝을박고 새끼줄을쳐 배구를 즐겼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의 청소년 대표팀이 제1회 泰國국제청소년 축구대회 준결승전에서 소련 청소년팀을 1차전서 1대1로 비기고 2차전서 1대0으로 승리한것은 매우 감격스럽고 고무적인 뉴스다. 소련인구는 약2억6천8백만이며 이번 대표팀은 「러시아 공화국」에서 선발된것이라고 하나 1억3천9백만명 가운데서 뽑힌 선수들이다. 소련의 축구열은 대단하다. 그국가대표팀은 세계4強 또는 적어도 8強안에 든다. 7년만의 대결에서 얻은 우리청소년팀의 승리는 따라서 장한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1954년 스위스서 열린 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 우리국가대표팀은 헝가리팀에 9대0으로 완패했었다. 한데 청소년팀은 이번 예선전서 그 헝가리팀마저 2대0으로 통쾌하게 꺾었다. 내일의 한국축구를 바라보는 청신호라 하여 무방하지 않을까.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日加
주간 <일가타임스>
日本과 캐나다의 뉴스및 생활에 도움주는 정보를 전하는 주간신문.
The Nikka Times
720 Spadina Ave., Suite 508
Toronto, Ontario
Canada M5S 2T9
☎ 923-2819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거구장 신년특집
"매혹의 가수"
신현희

와 함효상악단
한식, 중화요리, 화식
회갑, 생일. 동창회 파티와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5 BETHRIDGE RD.
ETOBICOCK
742-1618 이한영

社說

이번에는 決定版을
—부동산의 投機根絶을 바라는 提言

이대로는 방치할수없을 정도로 悪性的인 不動産투기를 근절하기위하여 당국은 10일下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갖가지 대책을 모색한것으로 보도되었다(한국일보11일자1면).

그중 건물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용으로 파는 사람이 市·邑·面·洞으로부터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에다 그목적과함께 사는 사람의 人的사항을 적어넣게하는 방안은 妙案에 속한다 하겠다. 비단 人的사항만이 아니라 賣買대상인 不動産의 地目·番地·面積과 건평도 기재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관한 사후관리를 치밀하게 하면 상당한 成果를 올릴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위해서는 아예 인감증명관계法規와 아울러 부동산등기관계法規도 동시에 유기적인 내용으로 改正하여, 賣買및 당사자간의 자유스런 거래에 의한 권리설정·변경등의 등기신청서류가 인감증명에 표시된 人的·物的사항과 꼭 부합될때만 이를 접수·등기하게할 일이다.

또 소유자가 同一不動産에 대하여 2회이상 인감증명신청을 할때에는 發給機關이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수 있는 권한과 심사사항을 法規化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寫本을 당사자의 관할세무서나 등기소에 꼭 送達하게 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다음 아파트청약용 예적금통장의 양도를 不動産買入(당첨)권의 양도로 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부과하려는 方案은 現行稅法上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한다. 투기억제를 위하여 슬기로운 결론으로 밀고자한다. 그러나 어쩌면 法律해석상 있을수도 있을 말썽의 素地를 근절하려면 이 경우도 所得稅法規를 개정하여 明文으로 분명한 근거를 確立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投機가 생기는 地域은 도시계획·구획정리실시나 地上地下 도로·上下水道·교육기관·通信등 주로 行政官署에 의한 便宜施設이 마련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에 유의하여 ①투기발생을 방지하거나 ②투기발생으로 상정되는 不動産가격급등에서 온 소유자의 利得에 대하여 衡平의 原則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할수는 없을는지 고려해봤으면 한다.

아파트투기에 관하여 우리는 전번 (1월6일자)에 小型住宅과 大型호화주택의 건설·분양가격등에 걸쳐 이미 소견을 밝힌바있다. 그 요지는 小型에 대하여는 건설에 있어서 公共지원을 해서 가격앙등을막고 분양에 있어서는 반드시 실수요자만이 이에 참여할수있게하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大型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一切의 행정적및 금융지원을 철회하고 분양은 이를 公開入札에 붙여 실세가격으로 팔되, 일정한 利潤을 포함하여 산출한 適正原價를 웃도는 부분의 분양대전은 이를 모두 세금으로 흡수, 庶民用 小型주택건설의 지원재원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住宅이 국민생활상차지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므로 그公共性도 높다. 따라서 설혹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가격을 자율화한다해도 그에는 공익상의 규제가 있어 마땅하다. 그런만큼 이들 모든방안을 실시키위한 立法의 必要性도 당연히 수긍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중개인들의 역할도 투기억제와 관련하여 크게 강조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관하여도 그들의 역할을 전지적으로 유도하는 갖가지 方案들을 모색함이 좋을것이다.

부동산투기는 재원있는 사람이 새로 집을 사는 경우에 생겨난다. 부득이한 사정과 비난할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例外로 하더라도 가외로 새 집을 장만 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그 목적이 賃貸또는 轉賣에 있다고 추정할수 있다. 이 경우 賃貸에 대해서는 賃貸에 관한 法的規制테두리에 맡기고 轉賣에대하여는 단호한 法的·行政的대책을 수립,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을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대책은 行政府안에서는 물론이고 國會도 이를 논의하는 기회를 가져야할 것이다.

우리의 人口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세나라중에 끼어 있는 현실은 土地가 그만큼 不足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이 사실은 부동산투기에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 他國에서 立法例나 行政規制例를 본딸 상대가 없음을 뜻한다.

그만큼 우리는 정부나 국민이 이에 관하여 외로운 싸움을 하고있는 셈이다. 이번기회에 널리 官民의지혜를 동원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일단 최선이라고 믿는 방안을 확정한다음에는 이를 섣불리 뒤집는일 없이 꾸준히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네 생각같아선 부동산 투기억제 때문의 경기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기 쉬운 그런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여겨진다. 오히려 그 투기억제책이 미온적인데서 투기붐을탄 浮動현상이 모처럼 잡혀가는 물가·경제의 안정기반을 되흔들것을 염려하게한다.

放置못할 殺人도사견
—「猛獸」로 취급、速히 對策세워야

환절기가 바삐게 다가 서고 있다. 解氷의 봄이 오면 긴장이 저절로 풀리는 탓일까, 뜻밖의 사고와 재난이 우리를 괴롭힌다. 화사한 待春의 햇살은 반갑지만 불행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서두르고 다져둘때다.

한참 잊을만 했더니 大邱서 殺人도사견이 귀여운 목숨을 앗았다. 집마당에서 기르던 맹견이 4살짜리 쌍둥이 남매를 한꺼번에 물어,죽고 다치게 한것이다. 우연한 사고로「또 그런 일이 생겼나」하는 정도로 덤덤하게 보아 넘길수만은 없다.

철부지 재롱둥이들이 맹수의 잔인성 앞에 그대로 팽개쳐지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다시는 아니라고 아무도 장담못한다. 해마다 도사견피해는 있어왔다. 77년 서울 阿峴洞 어린이 참사이후 알려진것만도 10여건에 달한다.

애완동물은 우리 정서생활의 반려노릇을 하며, 때론 외부의 침입자를 막아주는 파수꾼 몫도 해준다. 애완이나 번견용으로 개를 기르는 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짭짤한 부수입도 바랄수 있어 사육열은 매우 높다.

동물애호에 비록 무관심 하더라도 사육열을 문제 삼을 까닭은 없겠다. 개를 기르려면 먼저 사양과 관리, 품종에 대한 기본지식이 요구된다. 품종에 따라 야수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스피츠나 발바리등은 대개 온순한 복종형으로 한두번 물어 뜯는 그만둔다.

그러나 문제의 도사견같은 맹견은 성질이 아주 다르다. 일단 공격대상을 결정하면 끝장 내고말만큼 무서운 난폭성과 잔인성을 지녔다. 오래 묶어두었다 풀려나면 더 심하다. 일본 토종인 도사견은 잡종이 생겨나면서 鬪犬用으로 키워진 것이다.

우리나라엔 57년 처음 도입되어 경비견으로 애호를 받아왔다. 그 兇悪性탓으로 철창속에 가두고 단단한 쇠사슬로 묶어둬야한다. 입에 마스크까지 씌워야 할만큼 사납다.

이런「맹수」를 우리는 곁에서 마구 기른다. 지나친 비유일지 모르나 길이 멀든「野生」을 풀어놓는거나 다름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니 피해자는 으레 나약한 어린이다. 어른의 無知가 빚은 죄라고해도 달리「변명」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放犬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특히 봄철에 많다. 2월말부터 6월 사이에 피해의 80%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서울에만도 사육견은 20만마리가 훨씬 넘을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거리로 나온다.

사슬을 벗어난 放犬은 길가에 오물을 뿌리고 행인들을 위협한다. 더 무서운것은 광견병의 위협이다. 지금까지 병균을 보유한 개가 한해 30∼40마리씩 발견되었는데 치명적인 병균을 지닌 동물이 거리로 나다니게 한다는 것은 폭발물을 방치하거나 마찬가지다.

그동안「애완」과「난폭」사이에 끼어 단속도 늘 일시적이고 미온적이었다. 사고를 일으키면「박살로 끝나는」대책으로는「동물공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젠 좀 더 실질적이고 확고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다.

먼저 도사견은「맹수취급」을 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가둬 두고 키워야 할 일이다. 가정사육도 예외로 여겨서는 안될 줄 안다. 야수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앞으로 放犬은 거리에서 한마리도 볼수 없게 단속과 계몽을 강화하고 사육자들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 자녀에게 돌아온다. 어린이 보호는 어른의 가장 큰 책임이다. 사소한 위험일지라도 예방만이 최선책임을 깊이 깨닫지 않을 수 없다.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美、日에 警報機구매 壓力
共同通信 最新銳6대、日방위력增強 구실

【東京=聯】미국정부는 일본정부가 6대의 최신예 대형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구입해갈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일본의 共同통신이 10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共同통신은 이날 미국정부의 일본에 대한 최신예 AWACS구입요청이 美의회예산국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고 전하고『이같은 미국의 AWACS판매 제안은 나까소네(中曾根康弘)수상의 미국방문때 美정부지도자들이 강조한 일본의 방위력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의 하나로 보여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특히 美의회예산국은『일본에 대한 AWACS판매가 美국방비의 삭감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일본은 1천해리해상교통로방위와 東北아시아의 안전보장등을 위해 최신예 AWACS의 보유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蘇구체적행동을
中共外相 기자회견

【北京AFP=聯】중공외상 吳學謙은 10일 美·蘇양초강대국이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것이라고 촉구하고 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의 최근 중공방문은 美·중공관계에 있어『유익』했으나 아직도 대만문제가『양국관계의주요장애요소』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吳學謙은 슐츠장관이 중공방문을 마치고 떠난 4일후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열린中·蘇예비회담을 수주일 앞두고 중공외상으로는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吳는 슐츠장관이 訪中기간중 미국이 지난8월 발표된 美·중공공동성명을 준수할것이라고 다짐한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대만문제에 관한 美·중공관계가 개선되려면미국이 이 공동성명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준수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對韓·日유대는 強力"
슐츠歸國성명 "中共접근 未盡"

【워싱턴AP=聯】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이 약2주간의 아시아순방을 마치고 10일밤귀국했다.

슐츠장관은 이날 공군기편으로 워싱턴에 도착한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美國은 中共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공통이해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슐츠장관은 또 자신이 韓國·日本및 中共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세계의 장래가 아시아에 크게 달려있음을 확신토록하는 이들 3國의 약동과 창의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11일상오에 있을 아시아순방 결과보고에서 레이건 대통령에게『中共과의 더욱 밀접한 관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건실한 동맹국인 韓國및 日本과의 유대는 강력하다』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의 아시아순방이 핵무기통제와관련한 조지·부시부통령의 西歐순방과 밀접한 관계가있다면서 美國이 유리·안드로포프 蘇聯공산당서기장의 제의를 거부한 첫째 이유는 안드로포프의 제안을 수락할경우 유럽에서 철수되는 蘇聯의 중거리핵미사일이 아시아를 겨냥, 공격할수있는 거리에 재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될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北韓은 빈곤과 不正의사회"
在日교포 李志雄씨 北韓訪問記

【東京=聯】일본에서 발간되고있는 統一日報는 최근 오오사까 거주 在日교포李志雄씨(49·朝總聯상공회원)가 기고한 북한방문기를 통해 공산북한에서의 비참한 민중생활, 金日成·金正日父子 세습체제하의 포악한 독재·부정·부패, 사회전체에 만연된 구조적 부조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李씨는 이 기고문을 통해 지난해 여름 조총련방문단의 일원으로 북송가족을 만나기 위해찾아간북한의실상에관해『철두부터 말해 인민들은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으며사회는 상층부에서 하층부에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썩어 있었고 구조적 부조리로 가득 차 있었다』고 묘사한뒤『한마디로 오늘의 北韓사회를정의한다면 빈곤과 부정만이횡행하는 사회라 할수있다』고 지적했다.

"美의 外交 실패"
美誌 내부 결함 지적

【뉴욕AP=聯】82년도의 美외교정책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많았으나 내부적인결함때문에 잇단 실패와 당황으로 점철됐다고 미국의 유명한 季刊誌인 포린·어페어즈가 9일자 최신호에서 말했다.

워싱턴·포스트紙의 스티븐·로슨필드主筆은「美외교정책의 운명」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레이건행정부외교정책의 기반인 반공주의는 폴란드의 계엄령선포로 정당화되었고 레이건대통령에 대한 국내의 지지는 대규모국방계획승인으로 입증됐으나 결과적으로 82년도 美외교정책은『이렇다할 뚜렷한 성공을 거둔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폴란드사태및 소련의 천연가스관건설과 관련,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동맹국들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것을 비롯, 소련군 아프가니스탄개입강화등은 지적했다.

癌「妙藥」개발 青信號
日연구진 인터레우킨2 遺傳구조 밝혀

【東京=聯】日本 癌연구재단과 조미료메이커 아지노모또社의 연구진은 암치료약의 개발의 청신호인「인터레우킨2」(INTERLEUKIN2)유전구조를 밝혀냈다고 이들 두연구진 대변인이 10일 발표했다.

이대변인은 이들 연구팀이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세계최초로 癌치료약개발에 필요한 結膜박테리아를 배양해내는데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인터레우킨2」는 현재 癌치료에 관한「꿈의 약」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터페론이 기대만큼의 치료효과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 최근 새로운 癌예방약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총선앞둔 西獨各黨의 포스터戰 오는3월6일의 西獨총선을 앞두고 거리에나붙은 각당의 선거포스터들. (왼쪽에서부터 自民黨,社民黨의 한스·요헨·포겔및 집권基民黨의헬무트·콜수상의 모습도 보인다. 【하노버11일UPI=聯】

얼굴

李鍾聲 국민당 부총재
大凡·細心함께한 겸직의원

忠南방적회장직을 맡고있는 初選의 기업인 겸직의원으로 조용한 성격.

京城法專을 졸업한후 법무부 해무청 내무부 內閣首班실등에서 관료생활을 하다 공직을 그만둔후 조선맥주와 國安방적전무를 거쳐 70년忠南방적을설립, 10년만에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수완을 보이기도.

도파인사들과의 소리없는 접촉을통해 상당한 세력을 구축해 놓고있어 언젠가는 大權을 노릴것이란게 주위의 공통된 의견.

대범한듯 하면서도 의외로 꼼꼼한 일면을 가진 李부총재는 전당대회의장직을맡은 지난2년간 黨內중 … 했다.

金完泰 국민당 대변인
藥師출신… 소탈스런 성격

서울藥大를 졸업한 藥師출신初選의원.

1,2代統代대의원을 거쳐 11代總選때 槐山,鎭川,陰城에서 첫출마했으나 선거자금부족으로 도중 포기하려하자 유세장에 모인청중들이 현장모금으로 격려하여계속선거전을 치렀다는 일화가 있다.

서민車라할수있는「브리사」를 타고다니는가 하면 소속 상임위인 保社委에선 약사들의 권익옹호에 앞장서는 발언으로도 소문나있다.

고향에서 韓一중학교를 설립, 교장을 맡기도했다.

黨훈련원장이란 閑職에서 갑자기 대변인으로발탁되어 黨의입노릇을 얼마나 잘소화해낼지는未知數다.

記者의 눈

總帥들의 原稿

지난 일요일자 한국일보 특집에서 한국재벌그룹총수 8명의 글을 접했다. 미안한 말이지만, 학문과는 좀 거리가 먼 분들의 글이라 얼마나 틀린곳이 많을까, 교정기자의 입장에서 걱정부터 앞섰다. 글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오자를 고치고 문장을 최소한이나마 다듬느라고 교정은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조그만 걱정은 기우에 그쳤다. 그 분들의 글은 한결같이 문장도 좋을뿐아니라 표준어·맞춤법이 거의 정확했고 띄어쓰기에까지 신경을 쓴 흔적이 원고에 역력했다. 물론 재벌총수들의 글이므로 그룹홍보실같은 부서에서 세심한 주의를 했을것이고,그러기에 오자가 거의 없을수있었다는건 쉽게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글을 조금 잘못쓴다해도 큰흉은 되지않을 분들인데도 남의 앞에 내놓을 자신의 원고에 대해 이처럼 신중을 기하는 꼼꼼함이 그들로하여금 오늘의 부를 이루게한 원동력이 아니었던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인들의 글을 대하면서 좋은 대조로 떠오른 것이 일부학자 들의 원고이다. 표준어나 맞춤법을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는 느낌이드는 원고가 하도많기 때문이다. 영어나 독어,불어등은 알파베트 하나만틀려도 무식하다는 말을 서슴지않을 사람들이,우리글을 잘못 쓰고는 오히려 당연한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권위의식같은것을 느끼는 경우도없지않다.

이같은 현상은 어문에관계없는 사회과학분야의 일부 학자들중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분들이 40대후반이어서 어릴때 일본교육을 받고 우리글은 뒤늦게 조금배웠기때문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40대초반, 아니 30대학자 들중에도 우리글을 경시하는 경향이 드물지않다.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한글맞춤법 쯤은 익혔을 그들이, 오직 학문탐구를 위해 상아탑에 서만 생활해온 한국최고의 석학들이, 어째서 글을 쓸때, 혹은 다 써놓고 검토할때 한글사전 몇번 찾는 것을 기피할까? 우리글이 복잡한것 같지만 평소 사전을찾는 습관만 기른다면 그토록 오자가 많은 글을 쓰지는 않을수있을것이다.

학자들의 경우는 또 그렇다치고, 글을 써서 생계를 잇는 일부 문필가들의 태도는 더욱 한심스럽다. 어떤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맞춤법같은건 생각조차 않는것 같다. 한번 잘못 써 신문에 고쳐 나갔으면 그 다음번엔 바로쓸만도한데 한결같이 같은 낱말을 잘못쓰고 있다. 신문에 실린 자기 글을 아예 읽지않는지, 읽고도 자신이 잘못 쓴것을 발견하지못하는지, 잘못씀으로써 권위의식을 갖는것인지 도시 짐작도 가지 않는다.

해방된지 벌써 37년. 이제 한글세대가 각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한글 바로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필가이건 학자이건 경제인이건,글을쓸때는 언제나 사전을 옆에 두고 찾고물어 우리글 바로쓰기를 생활화했으면하는바람간절하다.【金達鎬교정부기자】

內外動靜

▲具龍鉉(民正) 金東烈의원(民韓)은 약 1주일간 日本교육 문화계 시찰을위해11일하오 출국했다.

李文公、졸업생맞아 一線國校生에 선물

李振羲 문공장관은 11일 비무장지대 자유의마을 臺城洞국교와 서부전선통일촌 군내국교졸업생의 방문을받고 15명의졸업생과 1백2명의 재학생에게 학용품등을 선물했다.

人事異動

經濟企劃院 〈課長級〉 ▲총무 表世振 ▲기획예산담당관 朴道震 ▲산업계획 鄭在龍 ▲사회개발계획 孟廷柱 ▲자금계획 李起浩 ▲물가총괄 吳斗鉉 ▲심사분석3 金泰石 ▲예산총괄 韓利憲 ▲예산관 安炳禹 ▲행정예산담당관 李永鎬 ▲농수산예산담당관 姜熙復 ▲공기업예산담당관 金鑫洙 ▲문교예산담당관 崔慶五 ▲제도운영 李南基 ▲기업1 金雄權 ▲기업2 池鎔基 ▲단체 金相根 (11日字)

保社部 ▲사회국장 朴一相(국립사회복지 연수원장) ▲사회보험국장 李沖植(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田炳勳(사회국장) ▲국립사회복지 연수원장 崔明燮(국립보건원 사무국장) (12日字)

國稅廳 ▲국세심판관 安昌植(駐日本대사관 재무관)

專賣廳 〈서기관급〉 ▲본청 수납과장 李車聊 ▲〃인삼과장 權泰琴 ▲안동 전매지청장 權泰周 (11日字)

本社來訪

▲成樂承씨(文化公報部媒體局長) ▲金千秀씨(韓國新聞編輯人協會사무국장) ▲玄峻씨(株애드·코리아副社長) 新任인사차

政局往來

국민당 黨職개편 진통…「嶺南師團」의원들 줄줄이 辭意

◆우리도10代、20代博士나오도록

全斗煥대통령은 11일상오 科技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과기처직원들은 기회있는대로 국민학교,中·高校등에 직접 나가 과학기술의 중요성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는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수한 人材들을 과학기술분야에 끌어들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

全대통령은『외국의 경우는 학교때부터 일찍 과학기술교육을 시켜 10代、20代에 박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30대가 넘어야 박사가 나오게 돼있다』고 지적하면서『앞으로 우리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바로 연결되도록 하고 선진국의 早期인재양성제도를 본받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氣象臺 우수人力확보문제에 관심을 표명『기상예보는 매우중요하므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등 우수한 인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당부.

◆白衣從軍 내세워 黨職거부 사태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는 11일상오 金完泰신임대변인을 통해부총재단,黨3役등의 黨職개편을 발표.

이날 金대변인은 金총재비서가 내민 인사내용의 유인물이 담긴 흰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보도진에게 배부한후 아무런 배경설명도 없이『나자신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며 발표후 황급히 퇴장.

같은시각에 당사에 나와있던 李萬燮부총재는 부총재직수락을 거부하는 미리준비된 성명서를 발표,이번 당직개편을 둘러싼 黨職波動을 예고.

李부총재는 이날『상식선에서 당직개편을 하겠다던 당초의 말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며『총재競選포기때부터 金총재에게 밝힌것이지만 白衣從軍하기위해 부총재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

이어 金鍾河 李聖秀 金遺腹 趙一濟의원등 소위「嶺南師團」의원들도 전화로 속속 사의를 표명했고 이들은 또 시내 P호텔에서 점심을들면서 당직거부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숙의.

한편 이들가운데 李부총재, 趙정책위의장, 金永光·金鍾河·李聖秀의원등은 사퇴서를 직접 중앙당에 제출하기도.

◆지구당大會, 세부적지침 없어

權翊鉉 民正黨 사무총장은 11일 사무국 月例조회에서『지구당 개편대회때 중앙당에서 지나친 통제가 있었던것은 조직활성화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앞으로는 사무국요원과 黨조직이 자율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하라』고 지시.

전국 92개지구당개편대회가 끝난 후 가진 이날의 첫 조회에서 權총장은『이번개편대회가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나 세부적인데에선 치밀성이 결여된점도 있었다』면서『중앙당에서 지구당에 지시할때꼭 시행해야할 사항, 위임할 사항등을 구분하여 시달하는게 좋다』고 강조.

權총장은 또『黨조직이 경직되지 않고 관료화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율성과 유연성이 발휘되도록 전체 사무국요원들이 합심노력하길바란다』고 당부하기도.

◆人材는 많고 黨職적어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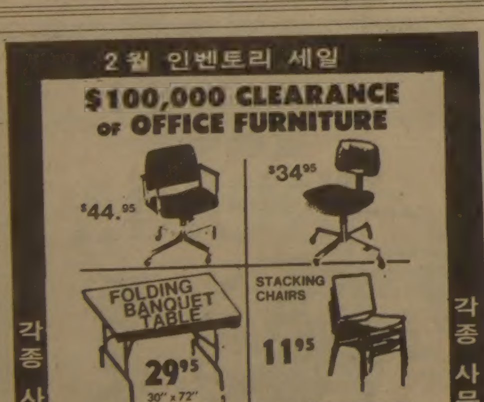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11일 黨職개편과 관련,『정국은 解凍의 싯점이며 변화를 추구하는 당내 흐름을 잘 알고있다』고『變化』를 강조하면서『다만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많은 이들이 인사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

柳총재는 이날 上道洞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大幅 개편」을 시사했던 당초 방침에 별다른「異常」이 없음을 밝히면서『현재 나의 머리속은 白紙상태이니 1주일쯤 느긋하게 기다려 달라』고 來週中 인사단행을시사.

柳총재는 또『어느 누구하나 나를 찾아와 당직운동을 하지 않을만큼 당원들의 자세가 세련돼 있다』고 흐뭇해하면서도『人材는 많으나 당직은 제한돼있어 안타까울뿐』이라고인사에 적잖은 고충이 있음을 비치기도.

한편 雜多한 당내 下馬評은 갖가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만 아직도「총재의 意中」을 헤아리지 못한 暗中摸索의 단계.

2월 인벤토리 세일



각종 사무실용품 세일

최고의 품질 · 최저의 가격

초대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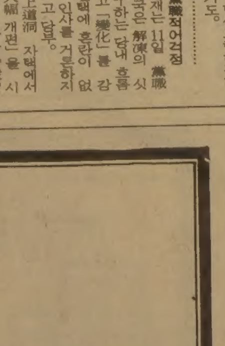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창립기념과 아울러 조직교회로서(Pastoral Charge) 캐나다 연합교회에 정식 가입함을 기념하는 특별예배를 아래와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여 하느님의 영광을 돌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 1983년2월20일(일) 낮12시30분
2. 장소 : 중앙한인연합교회(353 Sherborne St. Tor.)
   ☎ : 922—3863
3. 담임 : 김 택 규 목사
4. 설교 : Dr. Ralph W. Spencer
5. 특별순서 : 교향악 연주및 반주



□

중앙한인연합교회

1983년도 한인합창단재단

정기이사회 소집공고

본회에서는 회칙 제8조 가항에 의거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3년2월24일(목) 오후7시

장소 : 호 심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안건 : 과년도 사업보고및 결산보고,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어린이합창단 창단건, 기타

※저녁식사및 메시아 카셋트제공

한인합창단재단이사회

이사장 박 희 민

不動産 가격評價 部處마다 다르다

곳곳서 財産피해 "民怨"

收用·근저당·課稅등 큰差異

競賣땐 아예 "덤핑" 呼訴도 못해

부동산 가격평가가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들쭉날쭉이어서 국가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심한것은 물론 국민들의 큰 민원(民怨)이 되고있다.

세금매길때 적용하는 부동산가격과 토지를 수용할때 보상해주는 값이 다르고 은행이 근저당을 잡고 돈을빌려줄때 평가하는액수가 또 다르다. 저당잡힌 부동산이 경매에붙여질때는 어느값을 기준으로 내정가를 정한다는 규정조차없어 손해를봐도 호소할 방법과 길도없다.

현재 부동산평가업무는 내무부·건설부·국세청·재무부등 4개부처가 관장하고있는데 이를 통폐합하는 정비가 절실하다는게 여론이다.

내무부의경우 재산세등 지방세를 매길때 과세기준으로 삼는「과세싯가표준액」(과표)을 갖고있다. 그러나 이것도 건물은 건축자재와 구조등에 따라 전국을 균일하게 평가하고있으나 토지는 각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있는 실정.

건설부도 국토개발사업을 할때 수용하는 토지를보상하기위해「기준지가」란것을 만들어 고시하고있으며 재무부는 담보물평가를위해 감정원을설립「토지싯가」를 고시하고있다. 또 국세청은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기기위해「기준싯가」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많은 부동산 가격이 모두 다른것은 물론, 내무부의 과표를 제외하고는 전국토에 대한 평가를 하지못하고있어 엄격히 말하면 토지에 대한 국가적통일기준이 없는 상태라 할수있다. 건설부의 기준싯가는 전국의 40개시지역과 개발지·공업단지등에만 지가를 고시하고있고 감정원의「토지싯가」도 전국 40개시와 읍단위까지는 커버하고있으나 面·里지역은 방치상태.

「기준지가」는 지난 78년고시된 이래 추가고시는없고 지가변동률만 고시돼왔으며「토지싯가」는 상·중·하로구분하고있을 뿐이어서 정확한 값이라보기가어렵다.

부동산 평가업무도 건설부의「토지평가사」와 재무부의「공인감정사」로 2원화돼있어 복잡한것을 가중한다.

시중은행들도 근저당 설정을 할때는 감정원의 토지싯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출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는 자체감정을 하고있어 은행마다 다 다르기일쑤다.

이때문에 빚어지는 재산침해도많다.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대한 보상은 감정사와 평가사들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싯가보다 싸게 보상받는경우가 많다. 80년 이전까지는 그나마도 감정가액의 80%만주는 것이 공공연한 보상현실이었다. 금융기관이 채권확보를위해 근저당잡힌 재산을 경매할때는 더욱 손해가 심하다.

은행이 경매신청을 하는경우는 감정원 감정가격으로입찰 내정가를 정하지만 그밖의 경우는 감정가격이없는집달관들이 마음대로 내정가를 정하는데다 유찰이 될때마다 20~30%씩 내정가를 깎는것이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부동산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개업 토지평가사 1백20명, 개업공인감정사 1백37명, 감정원소속 감정사 2백여명, 국세청 평가공무원7백여명, 내무부산하 평가공무원 9백여명등 2천명이 넘으며 연간 업무비용은 2백30억원이상이나 될것으로 추산된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모순을 시정하고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대한 상공회의소는 최근『부동산 평가기관을 단일화하고 지방세 과세표준의 2원적운영을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하고『각 행정기관과 감정원등 평가기관을 통폐합,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하고 재무부 내무부 건설부 금융기관및 납세자 대표등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과세기준이나 공공용지의 취득 손실보상의 금액을 정하도록 하자』고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청이전부지를 수용할때는 많은 지주들이 싯가보상을 요구, 그가운데 일부시민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냈고, 서울永登浦수원지 부지에 수용된 지주7명도 감정가에 불복, 재결신청을 내는등 부동산토지가 들쭉날쭉에 따른 민원은 전국곳곳에서 일어나고있다. 【文昌宰기자】

뉴욕韓人 26명拘束

마사지業所주인등 移民局관리에 뇌물협의

【뉴욕支社=李基業기자】美이민국합동수사반은 뉴욕에 거주하며 나이트클럽이나 마사지업소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15명을 포함한 한국인26명을 美이민국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했다고 뉴욕 남부지역검사 존·마틴씨가 말했다.

마틴검사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고있는 한국인 12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민증을 소지하고있는지 또 그들의 종업원들은 합법적으로 이민해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뉴욕 남부지역 검찰청, 뉴욕市및 경찰과 美연방수사당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마틴씨는 말했다.

뉴욕事件관련 캐나다韓人 3명도 起訴

【터론토=聯】캐나다의 터론토시 한인회장을 지냈던 박인순씨(54)등 3명의 캐나다교포가 불법체류및 뇌물공여혐의로 한국여성 46명이 10일 뉴욕에서 체포된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캐나다경찰에의해 기소되었다.

이 3명의 한국인은 뉴욕에서 체포된 한국여성들중 일부를 미국에 밀입국시킨혐의를 받고있는데 캐나다경찰당국은 10일 이들 3명의 한국인들을 9일밤 심문했다고 밝혔다.

존·마틴美검사(中央)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맨해턴일대에 있는 韓國人소유 나이트클럽과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22명의 韓國人이 불법체류혐의로 구속됐다고 발표하고있다. 【뉴욕10日AP電=聯】

釜山 새벽 세탁소에 불

일가족4명 燒死

【釜山】11일새벽2시15분께 부산北區龜浦洞329 백광기계세탁소(주인 홍청재·47)에서 원인을알수없는 불이나 방안에서 잠자던 홍씨의부인 박옥자씨(41)와 장남 홍학군(17·학생) 차녀 경옥양(19·봉제공원) 2녀 선경양(14·학생)등 일가족4명이 불에타 숨졌다.

이날불은 목조슬레이트1층 19평중 10평과 세탁소안에걸어둔 손님들의 세탁물 1백50점, 드라이크리닝 기계 1대등을태워 1백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낸뒤 20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세탁소안에 피워두었던 연탄난로가 과열돼 옆에있던 옷가지등에 인화, 불이난것이 아닌가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聯】

校長부인 殺害

허위自首소동

속보=서울道峰區水踰5洞 敎岩국교장부인 崔玉珠씨(48)를 살해한 범인이라고자칭, 10일경찰에 자수했던 文成五씨(28·전과3범·崔씨의이질·서울城北區鍾岩2洞185)가 이날밤 허위자수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文씨는 이날밤 11시40분께 서울北部경찰서로 압송된뒤 당초「자백」과는달리 이사건의 유력한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받은뒤 심적하고 생활고까지겹쳐 거짓신고한것이라고 거짓자수경위를 밝혔다.

前國防長官 李鍾贊씨

국방장관과 9·10代 국회의원을지낸 李鍾贊씨가 10일 하오8시 서울龍山區 東部二村洞 한신맨션3동332호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67세.

故李전국방장관은 일본육사를졸업, 50년 수도경비사령관, 52년에는 육군참모총장을역임했으며 60년 중장으로 예편한뒤 국방장관을지냈다. 장례는 육군장으로 거행된다.

◇李鍾贊씨

全대통령 弔意

全斗煥대통령은 故李鍾贊씨의 빈소에 金泰鎬 청와대 정무제2수석비서관을 보내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保社部 간부4명 辭表

醫保公團부정관련… 3명懲戒

보사부는 11일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변태지출과 관련, 수사당국의 조사를받은 李斗鎬기획관리실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李실장을 이날짜로 해직시켰다.

李씨는 환경청 崔守一차장과 교체하기로 내정됐다. 한편 이와관련, 전사회보험국장 金永啓씨(국방대학원입교)、보험제도과장 車興奉씨, 보험제도과사무관 李根植씨、장관비서관 李麗炯씨등4명이 이날사표를 제출했으며 혐의사실이 가벼운보험제도과의 安竝 金重浩 李錫貞씨등 사무관3명은징계위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2일부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는데 秋夕등 명절때나 업무상회합 과정에서 두의보법인으로부터 5만~3백만원씩 돈을받아온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문제와관련, 의보연합회·의보관리공단등의 이사장및 간부들의 인사조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5寸아저씨 令狀

案內孃 살해혐의

【浦項】속보=경북浦項市松島洞 버스안내양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浦項경찰서는 11일 범행4일만에 숨진 안정애양(17)의 5촌아저씨인 안용한씨(23·浦項市松島洞산1)를 살인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안씨는 지난 8일 상오 11시50분께 같은 마을에 사는 4촌형 안모씨(48)집에 놀러갔다가 조카 정애양이 혼자 안방에서 화장을 하고있는것을 보고 욕을 보이려했다가 안양이 반항하며 밖으로 뛰쳐나가 부엌에서 가지고나온 칼을 휘두르자 당황, 발로 안양의복부를 3차례나 차 마당에서 숨지게했다는것. 【聯】

政府비방협의 金基喆씨 무죄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재판장 辛泰根부장판사)는 11일 외신기자에게 정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국가모독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상임총무 金基喆피고인(2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金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마지막 추위가 기승

11일새벽부터 수은주가 곤두박질, 서울지방은 영하9도2분까지 내려갔다。기상대는 구정인 13일까지 추위가 계속되리라 예보하고있다。【佛光洞 舊基터널입구에서 權周勳기자찍음】

教育稅징수 延長검토

運營難 91개 중학교 公立전환

문교부는 오는85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될 중학교 의무교육을 뒷받침할 재원확보를위해 86년말에 끝날 교육세징수기간의연장 필요성여부와 의무교육법개정, 지방재정교부금법등의 개정을 검토키로했다.

문교부는 11일상오10시 전국시도교육감회의를 열고 84학년도 학사운영지침을 시달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문교부는 또 85학년도부터 전국의 사립중학교를 정비, 종교재단및 사립사범대부속중학교의 신입생선발제도를 일반중학교와는 달리「선지원후추첨제」로 바꾸기로 했다.

선지원후추첨제로 바뀔 경우 이들 학교는 현재 똑같이 납부하는 공납금을 사립국민학교처럼 학교가 액수를 마음대로정해 학생들로부터 받을수있게된다.

이같은 중학교는 전국의 7백27개 사립중학교중 1백29개로▲서울·釜山55▲도청소재지46▲시지역22▲읍지역5▲면지역1개교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종교재단및 사립사범대 부속중학교 1백29개교를「자립학교」로 독자운영이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국고보조가필요한 4백80개학교를「보조학교」、고교전환이 가능한 27개교를「전환학교」、운영이어려운 91개교를「공립화학교」로분류해 정비키로했다.

공립화학교는 유지비 전액을 국고로보조해 육성시키게 되는데 수익용기본재산은 설립자에게 환원하고 교육용기본재산은 기부체납형식으로 시도에서 인수하며 교직원은 공무원화하기로했다.

한울회 上告審 5명모두 기각

대법원 형사부(주심金尙鍋판사)는 11일「한울회 사건」의 李揆鎬피고인(25)등 5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기각,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까지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李揆鎬=징4년 자격정지 4년 ▲朴在淳(23·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장)=징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洪性煥(22·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집행유예4년) ▲李忠根(28·교사)=징역·자격정지 각 1년6월 ▲李建鍾(28·학생)=〃〃

國慶日 總務處주관

정부는 3·1절등 國慶日중앙행사의 主管을 지금의 서울시에서 총무처로 이관하고 기념식행사때 참석자 전원이 애국가를 제창키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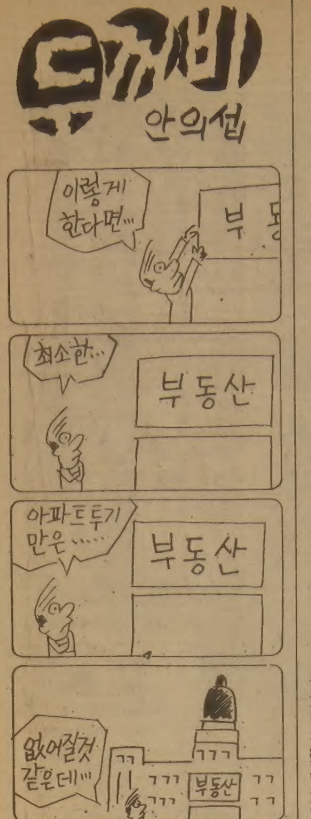
안내양 손자업은 할머니 떠밀어

손자 버스에 轢死

10일 하오8시께 서울中區會賢洞1街202 새로나백화점앞 버스정류장에서 외할머니 李明子씨(52)의 등에 업혀 서울5사5190호 시내버스(운전사 林鎬周·35)를 타려던 吳영철씨(33·미장공·서울九老區禿山3洞9)의 장남 仁煥군(4)이 등에서 떨어지면서 차에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날사고는 李씨가 버스를 타려고 승강구에 매달리는순간 안내양 許孝淑양(20)이『버스를 앞으로 빼』라며 李씨를밀치는 바람에 吳군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운전사林씨가 이같은사실도 모르고 차를 앞으로 빼다 吳군을 친것.

吳군은 이날 面牧洞에있는 외삼촌집에서 놀다가 할머니에업혀 禿山洞집으로가던 길이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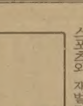
"봉이"와 財閥

대한체육회장 鄭周永씨

投資없는 經營이 金메달 따줄까

싫든 좋든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기업의 총수 鄭周永씨가「대한체육회장」에 취임 하면서 던진 제1성은『봉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私財를 많이 쓰려니 하고 기대하는 체육인들에게 幻想을 갖지 말라는 경고였을 것이다. 그는 지난9일 정기총회 석상에서도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거듭 하였다.

정치인들이 주로 활약하던 체육계 정상자리는 제5공화국이 출범하고 86아시안·게임、88올림픽을 유치한후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鄭회장의 등장도 그 변화중의 하나지만 각 경기단체의 長자리는 거의가 재벌기업이 나누어 가졌다. 스포츠와 재벌기업의 유착시대랄까….



현대의 스포츠는 과학이다. 이과학 스포츠는 막대한 투자에의해 그 성과가 약속된다. 소련이나 東歐圈이 스포츠강국으로 부상된것은 국가가 막대한 지원을 펴고 있기 때문에 생긴 산물 아니던가.

鄭周永회장의 신념은 대기업을 일군 창의력과 경영능력을 가지고 체육회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인모양이다. 그러나 체육회는 제품을 만들고 길을 닦고 각종건물을 세우는 건설공사장이 아니다. 스포츠는 각 종목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력과 싸우는 투쟁의 장인 것이다.

대한체육회산하에서 내노라하는 경제인이 회장직을 맡고있는단체에서 경기력 향상을 기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집중적인 투자 덕분에 탁구、육상、복싱등이 큰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을 뿐이다.

『봉이 되기 싫다』는 논리로 보면 집중투자를 했던 스포츠단체의 경제인회장은 충실하게 봉이 된사람들이다. 스포츠의 마력에 홀려 돈을 낭비한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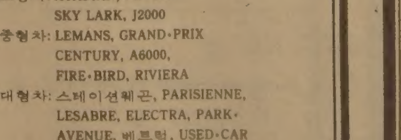
그러나 그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따낸 금메달도 낭비란 말인가. 그 금메달에 누가 돌팔매를 던질수 있을가.

한국스포츠 단체에는 돈이 없다. 관중을 동원하는 톱클라스의 경기력도 아직 갖고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나라의 재정형편이 넉넉한것도 아니다. 그러면 방치해두어야 하는 것일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금메달을 그때가서 돈을주고 살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지금은 민족의 숙원을 대신 해결해주는 고독하고 낭비하는 영웅이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른다. 『쓸돈은 없다. 그러나 금메달을 따자!』누가 幻想속에서 사는가. 【閔炳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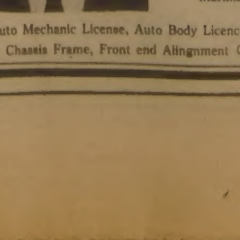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한인신용조합에서 새로 취급하는

R.R.S.P.

● 정부가 인정한 저축제도이므로 세제상의 혜택이 있읍니다.
● Earned Income(총 받은 수입)의 20% 또는 $5,500까지 저축할 수 있읍니다.
● 82년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금년 2월말까지 저축해야 합니다.
● 이자율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CO-OPERATIVE TRUST COMPANY OF CANADA
Member 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 ☎ 533-9387, 9388

새로 개업한 일본식당
"KURI" 栗林

□각종 스시및 일본식요리
□부페식파티등 단체예약 환영 (100명이상 수용함)
□술 면허 있음 (새벽 1시까지 open)

◀ 영업시간 ▶
월~토 11 : 30AM－2 : 30PM
6 : 00PM－1 : 00AM
일요일 6 : 00PM－1 : 00AM

165 Bloor St. E.
(불루어×Church)
☎ : 960－1765

"「텃세」에 鬪志로 맞서겠다"

오늘 決勝戰 泰A는 사실상 국가代表팀

本社、泰청소년축구 朴감독과 國際전화

제1회 泰國국제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중인 한국선수들은 12일밤 11시15분(한국시간) 열리는 泰國 A팀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必勝의 팀웍을 가다듬었다. 한국선수들은 11일 하오 출라롱콘대학 잔디운동장에서 가볍게 몸을 풀며 결전에 대비했다. 결승전 전망에대해 朴鍾煥 감독은 『방콕에서는 泰國A가 6—4로 우세하다고 내다보고 있으나 우리에는 특유의 강한 정신력이있다. 심판의 편파적 판정만 배제된다면 5—5의 좋은 게임을 할수있고 우승도 가능하다』고 본사와의 국제전화에서 밝혔다. 헝가리와 소련을 꺾은 무기였던 쇼트패스의 날카로움과 기동력을 살리고 수비헛점을 보완하면 게임의 주도권을 잡을수 있다는것이 한국코칭 스태프의 계산이다.

그러나 泰國A도 만만치않다. 태국국가대표선수가 9명 끼어있는 사실상 국가대표팀이며 주전선수몇명은 나이가 25살이 넘은 노련한 선수들이다. 또한 태국 관중들의 일방적 응원속에서 그들은 홈그라운드의 잇점을 최대한 이용할것으로보이며 심판배정 운영면에서도 절대유리한 입장에 있다. 朴鍾煥감독은 『부담감없이 마음놓고 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결승전 승부는 어느팀이 더많이 뛰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12일 전후반90분 경기에서 비길경우 30분간의 연장전을 벌이게되며, 연장전서도 승부가 나지않으면 13일하오9시(한국시간) 재경기를 갖게 된다.

다음은 朴鍾煥감독과의 일문일답내용이다.

—소련과의 준결승2차전서 동점골을 성공시킨 金興權은 어떤 선수인가.

▲일반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않은 선수이지만 수비력이 좋고 볼감각이 예민하다. 수비적인 HB으로 대성할가능성이 보이는 선수인데 결과론이지만교체를잘한것같다.

—결승전스타팅멤버는 어떻게 짜여지는가.

▲현재로서는 GK姜承鎬 FB金判根 文元根 俞炳玉 張政 HB金興權 盧仁佑 FW金鍾建 申連浩 金三洙 金鍾珉으로 구상하고 있다. 1·3·2·4의 탄력적 포진을 계획하고있으며 金鍾建과 金三洙를 많이 뛰게 하겠다.

—결승전서의 승산은.

▲50—50이다. 기량면에서 태국은 개인돌파가좋고 노련하다. 반면 우리는 월등한조직력과 패스웍을 갖고있다. 가장 우려되는것은 기술외적문제이다. 태국응원단이 나어린우리선수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수비숲 뚫고 질풍같은 대시　10일밤열린 제1회 泰國청소년 축구대회 한국—소련 준결승2차전에서 한국선수들이 장신 소련선수들의 마크를뚫고 전진하고있다. 【방콕AP電送=聯合】

金興權 한국 구했다

蘇와 불꽃튄 2次戰… 1—1로 비겨

終了1分전 동점골

◇金興權선수

【방콕=本社국제전화】한국이 蘇聯을 제치고 대망의 결승전에 올랐다. 한국 청소년 대표팀은 10일밤 방콕 국립경기장서 벌어진 제1회 泰國국제 청소년축구대회 준결승 2차전서 東歐의 강호 소련과 불꽃튀는 공방전 끝에 경기종료 1분전 후반교체선수인 신예 金興權(19·전남대)이 기사회생의 동점골을 성공시켜 1—1 무승부를 기록, 소련과의 두차례 경기서 통산1승1무를 마크하여 극적으로 결승전에 진출했다.

한국은 12일밤 홈팀 泰國A팀과 결승전을 벌인다. 이날泰國A는 후반 폴란드의 자살골로 1—0으로 신승, 결승진출권을 획득했다.

◇준결승2차전

한국1(0—1, 1—0)1소련
(1승1무)　(1무1패)

태국A1(0—0, 1—0)0폴란드
(1승1무)　(1무1패)

全대통령 祝電

全斗煥대통령은 10일밤 한국청소년 축구팀이 소련팀을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한데대해 祝電을 보내『國威를드높인 선수여러분의 善戰분투를 온국민과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任員들의 노고를치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결승전에서도 반드시 우승을획득, 한국청소년의 기개를 세계만방에 떨칠수있도록 선전분투해줄것을 당부했다.

14일 WBA 웰터級챔피언 決定戰

"준비完了…승부만 남아"

黃俊錫 마지막 컨디션 조절

【포트워드(美國)=金仁淑特派원】오는14일(한국시간)WBA웰터급 챔피언결정전을 가질 黃俊錫(22)과 도널드·커리(22)는 서로 자신의승리를 장담하는가운데 마지막컨디션 조절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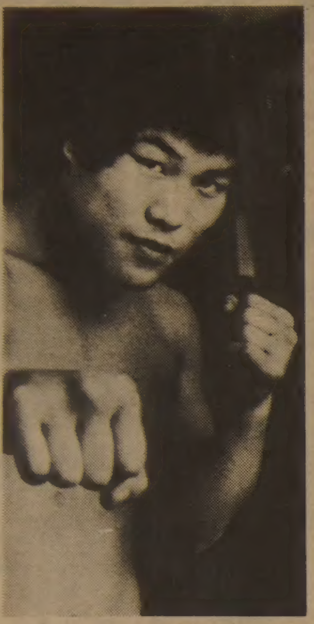
경기가 임박하자 팬들은이경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있으며 1만4천석규모의 타렌타·카운티컨벤션홀 입장권도 이미 절반이상 예매되는등 열기가 고조되고있다.

댈라스市에서 약50㎞떨어져있는 포트워드市는 커리의 고향으로 인구 약40만, 한국동포도 1천명남짓살고있다.

黃은 지난4일부터 이곳에서 마지막컨디션을 가다듬고있다. 黃은 커리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을골라 이곳서만 40라운드의 스파링을마쳤다. 당초 黃의 열세를 점치던 전문가들은 그의 스파링을 지켜본뒤 예상을바꿔 『만만치않은선수』라고말하고있다. 黃의 체중은 11일현재 68㎏을기록, 한계체중(66.68㎏)보다 1㎏가량 초과하고있으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있다고 金賢治매니저가 밝혔다. 이곳서 커리를 만난 黃은 『커리는 피피노·쿠에바스와 아론·프라이어의 중간형인것같다. 특히 잽을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커리의 신장은 1m75, 黃은 1m72여서 신장면에서는 부담이크지않다.

커리는 지난6일부터 감기에 시달려 사흘간 식사도 못하는등 고생한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도적 연막전술일 가능성도 없지않다. 커리의 매니저 데이브·만씨는 黃의 대전녹화필름을 10개를 집중연구했다고 밝히고 『상당수준의 파이터』로 평가했다. 고만트레이너는 『10개의 필름중 6개는 라이트펀치로, 4개는 레프트펀치로 KO승한것』이라며 경계심을 보였다.

커리는 『초반3라운드까지는 강한 잽을 던지며 상대의 반응을 보아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호각의 승부가 될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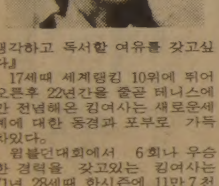


◇황소 黃俊錫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마지막 마무리훈련에 돌입했다.

女子테니스 老壯 빌리진·킹女史 돌연 은퇴宣言

83년은 프로테니스의 슈퍼스타들이 사라지는해인가。비외른·보리(26)가 은퇴를선언한데 이어 여자테니스의 노장 빌리진·킹여사(39)도『인생의 남은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83년이 테니스선수로서의 마지막해가 될것같다』고 은퇴의사를 밝혔다。

『테니스이외의것도 경험해보고싶다。지금까지는 승부의 긴박감에 좇겨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서



생각하고 독서할 여유를 갖고싶다』

17세때 세계랭킹 10위에 뛰어오른후 22년간을 줄곧 테니스에만 전념해온 킹여사는 새로운세계에 대한 동경과 포부로 가득차있다。

윔블던대회에서 6회나 우승한 경력을 갖고있는 킹여사는 71년 28세때 한시즌에 11만7천달러를 벌어 여자선수로는 처음 10만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보스턴AP電=聯合】

金南齊 2관왕

龍平盃 전국스키、회전서도 優勝

【龍平=安泰煥기자】檀國大의 金南齊가 제8회龍平盃쟁탈 전국스키대회 회전경기서도 1위로골인, 첫날 활강우승에이어 2관왕이 됐다.

영하10도의 쌀쌀한날씨속에 11일 龍平스키장 실버라인에서 열린 대회이틀째 남대·일반회전경기에서 檀國大 1년생인 金은 1분45초03을 마크, 전대표 崔哲炯(단국대)、洪仁基(국민대)를 제치고 우승했다.

한편 여대·일반부서도 金振姬(단대OB)가 53초32로 1위를기록, 첫날 활강경기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노르딕40㎞계주에서는 江陵農工高가 2시간26분51초로 우승했다.

◇제2일전적

▲남대·일반회전(6백m×2회)=①金南齊(단국대)1분45초03②崔哲炯(〃)2분4초91③洪仁基(국민대)2분7초96

▲동남고부(〃)=①金東允(강릉농공고)1분50초25②吳承一(강릉농공고)1분52초38③鄭基文(고성고)1분53초09

▲동남중부(5백m×2회)=①高一(도암중)1분54초72②金鍾蓮(〃)2분0초20③申在永(〃)2분0초63

▲여대·일반회전(4백70m)=①金振姬(단국OB)51초32②全淑禧(국민대)53초05③朴明淑(〃)54초03

▲동여고부(〃)=①朴美玉(영동여고)58초79②崔文信(경기여고)59초78③金誠愛(경북여상)1분1초56

▲동여중부(〃)=①李裕蘭(도암중)58초26②金玉仙(구로여중)59초02③魚蓮子(도암중)1분4초93

▲남대40㎞계주=①단국대 2시간29분44초②경희대 2시간32분53초③관동대 2시간51분18초

▲동남고부=①강릉농공고 2시간26분51초②진부고2시간31분51초③강릉상고2시간35분16초

▲동남중부=①도암중A 2시간47분32초②도암중B2시간48분33초③진부중2시간0분13초

▲여대부15㎞계주=①숙명여대 1시간28분30초

▲동여고부=①영동여고A 53분46초 ②영동여고B 54분22초

▲동여중부=①도암중 1시간12분24초

◇활강 남고부 레이스 (1천2백m)에서 황헌율(강릉농공고)이 역주하고있다. 【龍平=張啓文기자】

코치에 禹喆佑씨 高麗증권 배구팀

신생 고려증권 배구팀 코치에 禹喆佑씨(38)가 선임됐다.

禹코치는 지난 66년 국가대표로 韓電에 입사, 17년간 근무하면서 청소년및 주니어 대표 코치등을 역임했다.

排球協 常任이사진

대한배구협회는 11일 상임이사진을 구성했다.

◇배구협회상임이사진

▲전무=朴承洙▲총무=李洪幸▲재무=呂圭植▲기획=朴相元▲보급=李昌浩▲국제=李康平▲강화=張慶煥▲경기=劉錫哲▲심판=曺英浩▲기술=宋世榮▲섭외=李鍾萬

卓球선수 4명 싱가포르 派遣

대한탁구협회는 싱가포르탁구협회요청에 따라 朴鍾明(제일합섬) 池男容(경희대)등 남녀선수 4명을 13일부터 4월12일까지 2개월동안 파견키로 결정했다.

싱가포르탁구협회는 오는 4월 제37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동경)를 앞두고 전력강화를위해 韓國선수와의 합동훈련을 요청해왔다.

◇파견선수▲코치=姜文樹(제일합섬)▲선수=朴鍾明·尹智勳(이상제일합섬·남자) 李美暻·池男容(이상경희대 여자)

4월 런던마라톤 프로選手도 참가

【東京AP=聯合】국제아마추어육상연맹(IAAF)은 오는 4월17일 개최되는 런던마라톤대회에 프로선수들의 참가를 승인했다고 크리스·브레이셔 국제마라톤협회(AIMS)회장이 10일 말했다.

브레이셔회장은 도오꾜(東京)에서 열린 8일간의 AIMS총회가 끝난후 이같이 말하고 국제규모의 마라톤대회를 유치하고싶은 대회조직자들이 오는3월까지 IAAF에 프로선수들의 참여를 허용해 주도록 신청할 경우 IAAF는 이를 승인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短信

蹴球협회장 오늘 방콕에 ◆…崔淳永 대한축구협회장은 제1회 태국국제청소년축구대회에 출전, 12일 밤태국과 결승전을 벌일 청소년대표팀을 격려하기위해 12일 출국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361

張吉山 <1664>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24)

『사람들은 이리저리 흩려하니며, 공연히 들판의 먼지나는 메마른땅도 파보고 나무껍질도 벗기고 했지요. 아내와 저는 일시 헤어졌다가 양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에는 아이들은 모두 노중에 버려지거나 병들어죽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시 시작을 했지요. 불암산 아랫녘에서 남의땅을 부치다가 이곳 대탄으로 나와 강변의 묵정밭을 개간하였습니다. 판가에올리고 밭 닷마지기와 논세마지기를 장만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이를 낳았는데 딸둘에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딸하나는 죽고 하나는 출가를 시켰고 아들 둘은 갑자년 흉년에 떠난뒤 소식이 없읍니다. 재작년에 산으로 송염을 벗기러갔다가 버섯을 따왔는데 그것을 삶아먹고 풍병이들었읍니다. 아내는 며칠간 앓다가 일어났으나 저는 어쩌된 것인지 그로부터 사지를 바로 쓸수가 없읍니다 그려. 농사일도 못하고 있읍지요. 절에 가서 들었더니 우리 두양주가 허욕과 탐심이 많아 죄를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내 평생에 손에서 농구를 놓은적이 없고 일없이 넘긴 밥알 한톨이 없는데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저야 별로 큰 원도 없읍지요. 그저 두 부부 한날 한시에 죽어 양지바른 곳에 함께 묻히는 것과, 우리 죽기전에 유민이 되어 떠나간 자식놈들이 돌아와 만나게 되면 더이상 바랄게 없읍지요. 이까짓 풍병쯤이야 그래두 지난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셈입니다. 여미전부터 이곳 칠성암 미륵님이 영험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오려고 별렀더니, 오늘은 아내가 보살님도 뵈었다고 자꾸 보라고 하여 왔읍니다』

읽기를 노인의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 자신들의 이야기나 그렇게 살아왔고 또 흔하게 겪는 일이라서인지 아무도 감정의 변화가 없는 얼이었다. 그런 정도의 고초 간난이라면 온 조선천지의 백성들 누구나가 겪고있는 삶이었던 것이다. 여환이 말하였다.

『노인께서 열심히 근로하여 남부끄럽지 않게 부지런히 살아온 것을 누구나 알고 미륵님은 더욱 잘 아십니다. 그러나 부역은 또 한 얼마나 무거우며 조세는 사정이 없지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참되게 살아가노라고 죄는커녕 눈돌릴 틈도 없는 이들에게 탐욕과 죄를 뒤집어 씌우는것은, 포악한 수령이나 간교한 양반놈처럼 더욱괘씸하고 못하게 지배하려는 잔꾀올시다. 후세부민의 악귀나 재물만아는 부처는 죄로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요. 다만 미륵님께서는 노인의 진심을 알고는 있으시되, 깨우치지 않은것을 탓하십니다. 이렇게 자생하여 끈질기게 살아온 것처럼 스스로 병도 고치고 좋은 세상도 이루어내야합니다. 지금부터 전념하여 주문을 외우고 마음이 비워지면 다른 이들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내어야 합니다』

여환은 그에게 열중하도록 이르고 자기도 함께 염송하면서 한참이나 노인의 경직된 안면을 쓰다듬었다. 여환은 섭으로 노인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쓰다듬었고, 날을 용서하는 마음과 미륵의 가없는 자비의 마음으로 노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염송하고있는 노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오르고 땀이 구슬처럼 흘러지더니 일그러졌던 안면근육이 차츰 바로 잡히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여환은 계속해서 노인의 목덜미를 주물렀다. 노인의 머리는 바로 돌아오고 비틀어졌던 입도 가지런해졌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3주년 스페샬
PRO-II Personal Computer
Fully Apple II Plus Compatible
48K 90 Days Warranty
Only $795.00
여러분의 사업및 자녀교육용으로 가장 적합한 Computer 입니다. ☎:275-0702 오 덕 근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함효상과 그 악단
금.토.일 저녁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萬富宮海鮮飯店
KUNG FU MAN RESTAURANT
133-135 Dundas St. West,
Toronto, ONT. M5G 1C4
TEL: 598-3658
사천요리 전문
⊙신장개업 특별봉사
특히 팔진두부, 게탕, 해삼탕,
면류, 각종 중화요리
평일 11-12시
Fri, 17:00-다음날4시까지
Sat,Sun, pm,2:00-다음날2시까지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오후3시부터
·북경식요리
·소고기철판구이
·각종홍콩식요리
529 BLOOR ST. W. TOR.
533-3545·6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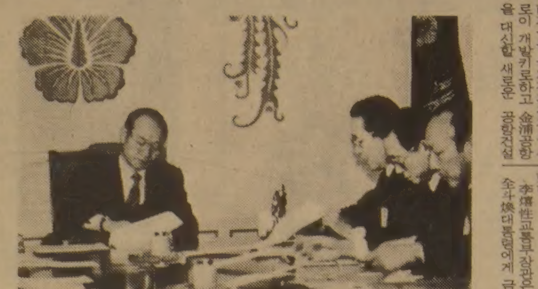
湖南에 봄샘暴雪… 車輛발묶여

◇지난8일 호남지방에 내린 지각 大雪로 산간지는 한때 차량통행이 두절되기도 했다。전북任實郡任實邑일대는 10일도 길이트이지않아 주민들은 찻길을 걸어서 트고있다。【본사 세스나機上에서 崔東完기자 찍음·金海日조종】

★관련기사11면

忠武에 대규모觀光團地

交通·遞信部보고 새空港후보지 年內확정



◇全대통령이 올해 교통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교통부는 10일 경남忠武道南지구를 국제적관광지로 새로이 개발키로하고 金浦공항을 대신할 새로운 공항건설 후보지를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李禧性교통부장관은 이날 全斗煥대통령에게 금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90년대에 수송능력이 한계에 도달할것으로 예상되는 京釜간수송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백50만달러의 IBRD차관으로 금년에 교통조사를 실시, 그결과에따라 고속전철건설문제등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忠武道南지구를 세계적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고있는 閑麗수도의 개발중추기지로 선정, 금년부터 91년까지 4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외관광객이 즐길수있는 각종레저시설을 국제수준으로 갖춘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또 지하철 완공후 버스노선조정등 대중교통수단 운영을 개선키위해 IBRD차관 3백만달러를 들여 연내에 수도권과 釜山시내의 교통조사사업을 끝내고 84년말까지는 大邱·光州·大田등 대도시도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택시운전사의 고정월급제를 정착시키기위해서는 운행시간, 승차회수, 운행거리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택시미터기를 개발, 차주와 운전사간의 불신을 해소키로하고 국제회의등에대비, 대당7천만원가량의 고급버스도 개발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연말까지 4백6억원을 투입, 金浦공항확장에 필요한 용지 75만㎡를 매입하고 지난1월 싱가포르 亞太항공회의에서 합의한 중공기의 濟州남단 한국비행정보구역 통과는 올하반기부터 허용키로 했다。

교통부는 濟州道 中文단지에 관광자유지역을 설치하기위해서 금년안에 특별조치법을 제정, 내외국인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보장하며 濟州관광종합개발계획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으로 국내외용역회사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교통부는 또 국민관광진흥을위해 慶州보문단지에 도투락랜드(83~91년), 경기城南市板橋근처에서울패밀리랜드(84~88년)를건설키로했다。

교통부는 또 해외여행자유화로 늘어나는 항공수요에대비, 서울—싱가포르, 濟州—도오꾜간 항공노선을 금년중 개설할 예정이다。

個人무전기·車輛전화 허용

체신부는10일 올해안에 전파이용을 국민편의위주로 과감히 개방, 근거리연락용 무전기 사용을 개인에게도 허용하며 출력이 낮은 장난감워키토키의 이용도 모두허용키로 하는 한편 만성적인 郵政적자의 해소책으로 부실우체국을 민간에넘겨 다른직종과 겸업 운영케하는위탁우체국을신설할것이라고밝혔다。

崔順達체신부장관은이날하오 청와대에서 全斗煥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이밝히고 情報化사회를 촉진하기위해 84년까지 종합정보 통신망 건설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체신부는 또 오는6월부터 코드없는 전화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84년중 수도권에 3천회선정도의 자동차 다이얼전화를 보급할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편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훼손된 엽서를 약간의 우편요금을 받고 교환해주며 오는 7월부터는 慶弔우편엽서와 광고문안을 넣은 우편엽서를 판매하여 우정재정자립을 꾀할 계획이다。

"각종國際회의 완벽期해야"

全대통령指示 "遞信업무 신뢰받도록"

全斗煥대통령은 10일 상·하오 청와대에서 교통부와체신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각각 보고 받았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李禧性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금년부터 각종국제대회가 잇달아 국내에서 열리는만큼 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조, 관광과 수송업무에 차질이없도록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 시행해나가라』고 당부하고『특히 이같은 국제대회에 대비, 세계각국의 관광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한국을 찾을수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관광진흥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국내외 관광객들을 모두 유치할수있는 관광자원개발에 노력하라』고 지시하고『관광자원 개발은 서울주변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방도 균형있게 개발이되도록 유의하고 관광 개발에는 가급적民資를유치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無籍차량에대한 철저한단속과 차량의 僞裝번호사용은 일체 없앨것 ▲철도, 차량, 선박등의 大型사고 방지책을 수립, 철저히 시행해나가는 한편 관광철등에 대비,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거의 사고시기와 형태등을 엄밀히 점검해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落島등 僻地노선은 새로운 노선개설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旣存노선에대한 미비점을 계속 점검보완해 나갈것▲철도와 港灣요원등의 전문人力양성을위해 적극노력 할것등을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하오 崔順達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고『앞으로通信분야의기술도입을자유롭게해 자유경쟁을 촉진해나가도록하라』고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체신업무는 신뢰가 생명인만큼 국민으로부터 不信을 받지않도록 체신행정을 펴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특히 체신부는 재무부 금융당국과 협조, 체신예금 國公債판매등의 郵政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나지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蘇、신형爆擊機 極東배치

美B1보다 커 세계最初 大陸間공격 가능

日紙보도

【東京=宋孝彬특파원】 소련은 최근 미국의 B52전략폭격기 또는 새로 개발한 B1보다 큰 초음속가변익전략폭격기를 개발, 이미 극동지역에 배치,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일본의 산께이(産經)신문이 10일 美군사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와인버거美국방장관은 이달초 美국방교서를통해 처음으로 소련이 신형 전략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정식으로 시인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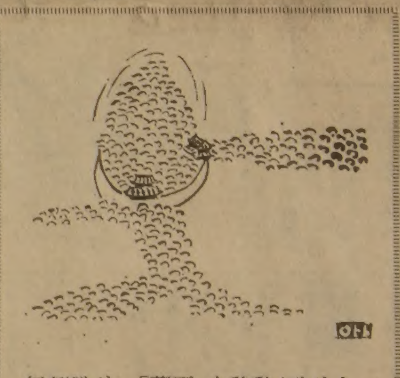
소련의 새전략전폭기의 성능 명칭등 구체적인 사실이 일체 서방측에 알려지지않아 NATO군(북대서양조약군)이 붙인「블랙·잭」이란 코드네임으로 현재 불리고 있다。

블랙·잭은 소련이 세계최초로 대륙간 공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초음속 전폭기로 지난해 가을 북극방면으로부터 시베리아중심부로 비행,이동하고 있는것을 美공군 레이다가 포착한이후 1개월만에 극동 시베리아의 한소련공군기지에 2대가 기착해 있는것을 美정찰위성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美공군소식통은「블랙·잭」이 아직 실전배치된것은 아니며 빨라도 6개월이상이 지나야 작전가능한 상태의 부대편성이 이뤄질것으로 전망했다。

일본방위청소식통은 對地核미사일6발을 장비할수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전폭기가 극동에 배치·운영될 경우 일본등 주변국은 물론 특히 美본토까지도 핵공격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 확실한것으로 보고있다。

社会漫評



年例행사…「舊正 大移動」개시!

不動産 거래때 人的사항 記載

아파트分讓價 현실화

關係長官회의 投機억제對策 곧 시행

정부는 10일하오 경제기획원에서 金埈成부총리 주재로 내무、재무、건설등 관계 부처장관들이 참석한가운데 부동산투기억제방안을위한 대책협의를열고①부동산거래를할때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을첨부토록하여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자세히기재토록하고②정부가개발지역고시이전에 공공기관에서 해당지역의 토지를수용、또는 협의매입함으로써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지않도록하며 ③아파트분양가격을 현실화시키고④복덕방의 허가제실시⑤정부관계기관 합동조사반과 세무조사반을상설、월1회씩 사전 점검키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4일부터 7일까지 투기현장에 투입돼 현지조사를 했던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은대책을 마련 실무자협의를거쳐 빠른시일내 시행키로했다。

합동조사반은 보고를 통해 서울의 可樂、開浦、新亭、木洞과 城南、果川、半月、光明、廣州등 근교、大田시주변과 天原郡木川面、경기도安城및濟州지역의 토지가격이 지난연말부터 2월5일까지 두달동안 10~67%까지 상승했고 특히 城南의 생산녹지는 1백%이상 오르는등 급상승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토지거래양상은 外地人에의한 토지매입이 대부분이고 서울사람들끼리 전매행위가 성행하고있으며 소개업자들의 가격조작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계획발표등 유언비어가 유포되는등 투기현상이 뚜렷했다고 보고했다。

서울강남아파트지역의경우 狎鷗亭洞 현대아파트(65평·11차분)가 1억6천만원으로 지난연말에비해 14.2%가 오른것을 비롯 신반포 서초동 여의도지역의 일부아파트가격이 4.5~11.1% 올랐고 가입날짜가빠른 0순위통장프리미엄이 최고 4천만원까지 오르는등 과열현상을 보였다。

0순위통장 프리미엄은 5백만원짜리 (40평이상)가 연말의 1천8백만~3천5백만원에서 1천8백만~4천만원으로, 4백만원짜리 통장(30~40평)이 1천2백만~1천8백만원에서 1천2백만~2천5백만원으로、3백만원짜리 통장(25.7~30평)이 6백만~1천4백만원에서 6백만~1천8백만원으로、2백만원짜리 통장(25·7평이하)이 6백만~1천2백만원에서 6백~1천6백만원으로 각각 올라 최근 2개월간 통장 1개당 4백~7백만원 올랐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택시料 내일부터 引下

走行料만 4百m 50원서 40원으로

◇개정택시요금 조견표

현행	개정후	인하율(%)
800	760	5
1,000	920	8
1,100	1,000	9·1
1,200	1,080	10
1,400	1,240	11·5
1,600	1,400	12·5
1,800	1,560	13·4
2,000	1,720	14
2,500	2,120	15·2
3,000	2,520	16

오는 12일부터 택시요금의 주행료가 현재의 4백m당50원에서 40원으로 내린다。

교통부는 9일 택시연료를 값이싼 LPG로 전환한데이어 유가가내려 택시요금을이같이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택시요금이 기본요금(2㎞)은 종전대로 6백원을 그대로 받지만 평균 9·1%가 인하된 셈이다。

교통부는 택시요금인하로 운수회사가 운전사의 월급을 내리거나 임금문제로 노사간에분쟁이 일어나는 일이없도록하고 대민서비스도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감독키로했다。

한편 太白、南原、錦城、永川、金海등 6개도시 지역에서 운행되고있는 휘발유택시는 지난81년11월29일 유가가 5·7%인상되었고 월급제실시등으로 인상요인(22·7%)이 있지만 휘발유가격이 10·8% 인하되어 현행요금대로 받기로했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地平線

새학기가 되면 많은 대학 신입생들은 가슴이 부풋해 진다。커다란 포부가 새봄의 파란 싹들 처럼 터지려 한다。새「대학생」은 젊음으로 그득하다。대학은 신입생을 모아놓고「오리엔테이션」을 펴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었다。『대학이 무엇인가?』그리고『대학생은 누구인가?』를 심원한 지성속에 박아 주기 위해서다。▼확실히 요즘의「대학」은 옛날의 太學·國學·성균관이나 11세기 이탈리아의 볼로냐대학 같은 옛 대학과는 다르다。귀족이나 특수계층 자제들의 학습장이 아닌것은 물론「교수·학생간의「길드」조직인것도 아니다。오늘날의 대학은 심히「분화」되었고 많은 하위집단의 총화적인 메가 바깥사회와 밀접히 얽히게 되었다。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갈등·긴장·마찰도 안고 있는것이 사실이다。▼신입생오리엔테이션은 그래서 필요하다는것이다。어원은「方向定位」라는 뜻에서 나온것이므로 대학생활이 어디로 향할것인가를 바로 잡아 주고 또 길을 터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다。오리엔테이션이 그정도의 뜻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차츰 그경향이 새학기 벽두의 페스티벌화되어가는 느낌마저 진해간다。그것도 신입생만이아닌 재학생까지 포함시켜 가면서―▼서울대의 金泰吉교수가 신입생을 위해「대학과 지성」이란 글을 대학신문에 낸일이 있다。金교수는 그속에서『지성인은 사회가 보편적으로요구하는 기본적 도덕률을 존중한다…지성인은 그러한 도덕률을 애써 실천 한다』고 지적했다。그리고 대학생은『민족의 선두 에서 역사의 방향을 밝히는 횃불의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金교수의 이 기고문에서 우리는 오늘날 대학의 지성들이 어떻게『방향을 정해야 할것인가』를 충분히 터득할수 있겠다。▼한데 최근 전해지는 몇몇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은 아무래도 과분하고 궤도이탈을 하고있는것같다。그러다가「기본적 도덕률」이 입학벽두부터 산산조각 나지는 않을는지 모르겠다。학교강당을놔두고공공집회장、체육관으로 나와 집회하는것까지는 형편상 있을수있다하더라도 올해는 먼 지방이나 큰도시 유드호스텔을 빌어 원정을하는가 하면 며칠씩 합숙까지 한다니말이다。▼다채롭고 진지하다는느낌보다 보기에 따라선 호화판 법석을 떠는것 같은 인상마저 없지 않을것이다。그위에 몇만원씩「실비」가 따른다니 과연 꼭 그렇게 해야할것인지 되새겨봤으면 한다。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신입생의 푸른꿈이란 반드시 그같은 요란한 원정행사나 소리로만 가꾸어지는것은 아닐게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외할머니 떡도 싸야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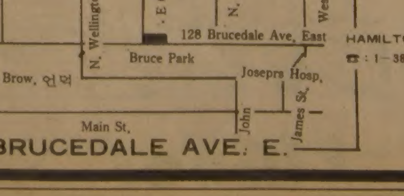
특별세일기간
2월8일(화)
~3월8일(화)까지

□100불이상 상품구입시
쌀50Lb(선학표 또는 가주미)
1푸대 Free
□50불~99불 상품구입시
라면(사뽀로 또는 삼양)
1Box Free
□30불~49불 상품구입시
닭표간장(900ml) 1병 Free

★일일이 많은 스페샬품목을 열거치 않겠읍니다.
모든상품을 토론토사상 최하가격으로 봉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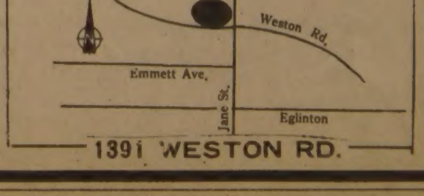
※Free 품목은 쌀, 불고기, 갈비, 참기름, 간장및 Box품목
(예 : 라면등)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 1-385-1485
해밀톤 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 : 243-9544
서부 서울식품



1391 WESTON RD.

「不動産투기規制방안」의 虛實

投機의 불길에 새로운 消火彈

개발예정지등 발표전에收用 「꾼들」 轉賣행위추적도 가능

◇정부는 부동산과열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복덕방허가제를 실시, 투기조장을 일삼아오던 소개업사를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10일 정부가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한 부동산투기규제방안은 무슨일이 있어도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구체화시킨것으로 볼수있다.

이날 논의된 규제방안중에서 새롭다고 할만한것은 ▲개발예정지를 정부가 미리 사들인다는 것과▲인감증명서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투기지역고시라든지 복덕방허가제, 아파트가격자율화, 상설투기조사반 운용방안들은 여러차례 논의됐던 것이고 그중 일부는 이미 써본 경험이 있는 정책수단들이다.

새롭게 나온 방안중에서 개발예정지를 미리 사들인다는 것은 개발이익이 특정개인에게 돌아갈 수 없도록 해서 투기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봉쇄해버리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두달간 토지가격이 1백%이상 급상승, 과열투기현상을 보였던 城南市남부지역 녹지의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헛소문과 함께 땅값이 뛰기 시작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이 방식이 효험을 나타낼듯 싶기도 하다. 濟州일원과 天原郡木川面 독립기념관부지 일대 새로 市에 편입되게 된 大田市 주변지역등 토지투기현상을 보였던 곳은 모두 그린벨트해제 또는 개발지역지정을 계기로 땅값이치솟았다.

개발붐을 타게되면 땅값이 오를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해서 가격상승을부채질하고 투기를 불러오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린벨트해제예정지역이나 개발예정지역을 지정 발표하기전에 미리 사들인 다음 택지나 공장 또는 다른 용도의 부지로 개발한뒤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한다면 투기의 소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인감증명서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한자로 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미등기전매행위를 추적할 수있는 근거를 남기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미등기전매를 일삼는 상습투기꾼들도 계약서를 주고 받을 때는 계약서상의 인감도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 인감증명서를 주고 받으므로 이 인감증명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하면 자연 거래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인적사항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인감증명도 없이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그것은 예외적인 현상일 것이고 대부분은 인감증명을 주고 받고 있으며 따라서 인적사항기재로 전매행위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보고있는 것같다.

이 두가지 새로운 방안은 시행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종합대책을 확정하게될 내주 관계장관회의에 대비해 현재 관계부처 실무자들 사이에 작업이 진행되고있는데 개발예정지 사전매입과 인감증명상 인적사항기재는 틀림없이 채택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거론만 자주되다가 제대로 시행되지않아왔던 투기지역고시도 이번에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야말로 부동산투기에 대해 한번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한 고위당국자의 말로 미루어보아 내주 대책회의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지역으로 고시되면 양도세의 과세기준이되는 시가표준액대신 국세청이 일방적으로조사 결정하는 기준가격으로 하게돼 무거운 세부담을하게된다. 자금출처조사를비롯한 까다로운 세무조사도 담하게되고 고시지역내에서의투기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연말 서울강남 開浦지역투기때도 투기지역고시를 고려하다가 단행하지 못한것은 주택경기를 중심으로 회복되고있는 내수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이었다. 『수출도제대로안되는데 내수경기마저 죽는다면 전체경제동향이 어떻게되겠는가』하는것이 당국자들의 걱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기때문에 일부지역에 투기지역 고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복덕방 허가제는 이미 개점안을 마련, 2~3월께 열릴 임시국회에 관계법률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허가제가 실시되면 노인문제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그 실시지역을 선별해서 제한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가 심한지역에 대해서는 복덕방이 거래알선 사항을 모두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때는 허가취소나 기타 다른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아파트가격자율화 문제는 집값을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한번 시행했다가실패한 경험도 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일단 가격자율화를 해놓고프리미엄이 붙는데 대해서는 50~80%정도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서 주택기금같은 것을 조성하고 그기금으로 임대주택등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결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현단계에서 현실성있게 고려되고있는 방안들은▲개발예정지 사전매입의 제도화 ▲인감증명서상의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기재의 의무화 ▲복덕방허가제 ▲일부지역에 대한 투기지역고시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이 얼마마한 효험을 거두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없다.

투기의 붙은 일단 끌수 있겠지만 불씨까지 없애지는 못할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 城南의한 부동산 소개업자는 『土地마피아단이 벌써 선납일대를 한바탕 휩쓸었다』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손털고 딴데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濟州나 大田에서도 기민한 전문투기꾼들은 오래전에 한탕하고 발을 뺐다』는 것이다. 증권시장에서 큰 손들이 株價를 조작하고 차익을 빼먹듯이 부동산에서도 『한탕 하는 원리』는 똑같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한다. 뒤늦게 휩쓸려 들어 높은 시세로 『상투 잡은』 사람들이 한상 투기규제의 된서리를 맞게되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투기꾼들은 언제나 한발 앞서 현장을 벗어난다는것이다.

이런 전문적인 『꾼』들과 「조직」이있고 그뒤를 대는 돈줄이 있는한 투기의 불씨는 없어지지 않는다는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정부가 투기대책을 논의하면서 이런 상습투기꾼과 돈줄에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것은 불씨를 남겨두는 것과 같다.

투기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심한 해독을 끼치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물가1~2%를 다투는 마당에 앉은자리에서 수천만원이 남는 투기현상이 성행한다는것은 일반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劉晴錫·朴武기자】

메아리

空間

金昌悅 <編輯委員>

서울시의 어려운 살림을 생각하며, 속셈을 해 본다.

32 곱하기 1백은 3천2백.

汝矣島와 永登浦사이 샛강을 메워 얻어지는 땅 32만평을 한평 1백만원씩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의 셈이다. 해답은 3천2백억원.

그러나 32만평 넘어 샛강을 메운다고 땅 32만평을 다 팔 수는 없다. 도로와 공원등 공공용지를 떼어 놔야 한다. 아무리 汝矣島가 계란 노른자 같은 섬이라 해도, 하천부지가 「노른자」값에 팔릴것 같지도 않다. 이것 저것 감안해서 팔수 있는 땅의넓이와 값을 당초 셈의 절반으로 쳐 본다. 그러면 16 곱하기50은 8백—.

그 값은 통틀어 8백억원이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비용을 제하고 나면, 서울시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汝矣島 샛강을 매립하기로한 서울시가 이런투로 셈을 놓고있다고 생각하기는 싫다. 하지만 굳이 샛강을 메우겠다고 고집하는 까닭을 알수가 없으니, 짓궂은 공상을 하게도 된다.

한해 1조원, 정부예산의 10분의1을 쓰는 서울시지만 그 주머니 형편은 몹시 궁색하다. 지하철 건설이 벅찬데다가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준비에도 막대한 돈이 든다.

지금 마구 파헤친 지하철 2·3·4호선만 해도 자그마치 2조2천5백억원이 드는데 그중 1조6천억원을 빚으로 꾸려야 한다. 그 이자를 한해 5%만 잡으면 꼭 8백억원. 汝矣島 샛강을 메워 팔아야 지하철 빚의 1년치 이자를 가릴 뿐이다.

게다가 「大役事」라 불리는 漢江改修사업이 있다. 3천4백억원이 드는 이 사업에서 1천7백억원의 低水路공사비는 강바닥 모래를 팔아서 댄다지만 1천7백억원의 下水處理場에는 생돈이 든다. 그래서 모래를 팔아 低水路공사비를 대는것과 마찬가지발상으로, 샛강땅을 팔아 下水處理場을 만든다는 생각이 있을수있으나 그래봐야 샛강 땅으로는 그공사비의 절반을못댈테니 딱하다.

샛강의 넓이는 汝矣島넓이의 3분의1쯤된다. 퍽 큰 면적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번잡함에 대면 「새발의 피」나 같다.

이처럼 땅을파는 것으로는 서울시의 짐을 크게 덜수가없다. 매각처분할땅도 이제는 별로없다. 눈에 될만한 것을 꼽자면 九宜洞 低地帶를 매립한 7만평과 汝矣島에서 아직 市有로 남아있는 反共전시장의 대지2만평이 있을뿐이다. 서울시는 이두곳 땅도 팔아치울 셈이라지만 그값은 뻔하다.

汝矣島의 샛강은 九宜洞땅이나 反共전시장부지와도 다르다. 그것은 汝矣島가 汝矣島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것은 서울다운 서울을 위해서 꼭 남겨두어야 할 空間이다.

그렇잖아도 서울의 都市空間은 너무 빽빽하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변두리로 옮겨 간 학교부지들을 모두 팔아 치워, 서울 都心을 더욱 빽빽하게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서로 이웃해있던 淑明女高, 鍾路·壽松 두 국민학교 자리 근 2만평과 騎馬경찰대 자리는, 널따란 都心공원을만들만도 했으나, 모두 빌딩이 들어 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 땅의 빌딩 건축을 허가하면서 건폐율·용적률을 줄이고 녹지를 확보하도록 했다고 생색이지만, 학교가 있을 때보다 空間이 답답해질것은 뻔한 사실이다. 더구나 壽松국민학교터는 소방본부·교통국 청사등 都心에 걸맞지않는 마구잡이 건물로 空間을 꽉 채워버린것이 서울시 자신이다.

이렇게된 원인은 요컨대 돈이다. 학교를 옮길 돈이 없으니, 학교 터를 팔아야 했고, 땅을 팔았으니, 빌딩 건축을 마다할 수가 없다.

前轍은 또 있다. 바로 汝矣島다.

汝矣島의 건설공사는, 공사당시의 서울시 財政규모로는 벅찬 役事였다. 그어려움을 이겨 낸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뒷 감당을 위해 땅을 팔아야 했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 市營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결과가 오늘의 汝矣島 모습이다. 달리 개발할 수 있었다면, 서울의 맨해턴 (뉴욕都心을 이루는 섬)을 꾸밀 수 있는 好機를 놓친 것이다.

상말로 하자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긴다. 하지만 한번 사라진 都市空間은 다시 찾지 못한다.

서울시 財政은 달리 마련할 길이 있다. 정부로서도 의당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정 어려우면 도시개발사업을 한 걸음 늦출 수도 있다. 그러나 샛강은 한번 메우면 영영 복구할 길이 없다. 그터에 빌딩마저 짓는다면 그 空間을 아주 잃어버리게 된다.

샛강 땅값을 속셈하는 서울시를 위해 아쉬운 것은 都市空間의 뜻을 생각하는 都市行政, 前轍을 살펴가는 슬기다. 8백억원에 샛강을 팔 것이 아니라, 8백억원을 들여 그만한 空間을 사들인다는 투의 發想轉換이 아쉽다.

波紋던진「상식人事」

국민당、窮餘之策의 黨職개편

「副總裁3명」이 불씨로 후유증·不協和音 계속

金鍾哲국민당총재의 이번 黨職개편은 無競選에의한 자신의 총재再選으로 표시되는 「軌道修正說」은 국민당제2期」의 출범과 보조를 같이 한다는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金총재가 지난3일의 全黨대회에서 재추대된후 앞으로있을 黨職構想의 기준을 밝히는자리에서『당내분위기를 一新하고 총선체제를 구축하며 당내화합을위해 누구나 共感할수있는 黨職線의人選을 하겠다』고 밝힌사실을 상기할때 金총재의 이번黨職개편은 人選의 어려움과함께 제3黨으로서 국민당의 위치와 앞으로의 국민당前途를 짐작케하는것이라고 할수있다.

여기에 黨內에서 예상했던 「대폭」도 「소폭」도 아닌 주요당직의 「유임」으로 개편이 마무리 된것은 이같은 黨職體制가 앞으로 있을 85년 총선까지 계속되는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適材適所의 인사를 再 斷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여진다.

그러나 金총재의 이번 黨職개편은 黨內에 또 한차례의 人事波動을몰고와 복잡한 진통을 거듭하게 만들었다. 일부 신임당직자들은 물론많은 소속의원과 당원들이 이번 黨職개편에대해 불만을터뜨리며 黨職辭退등의 방법으로 즉각반발한것이다.

특히 이번의 人事파동은지난2년간 몇차례 겪었던 파동의 체험과는 달리 波長이 넓고깊어 앞으로 상당기간말썽이 계속될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유증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확실치는않으나 이번 全黨대회를 계기로 어렵풋이 나타난 黨權派 非黨權派간의 系譜가 더욱확실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당초 국민당내에서는 金총재가 앞으로 획기적 당직개편을 하지않을경우 黨內 불협화음이 계속될것이란는 우려와 함께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회의적 논조리를 받아왔던 金총재의 지도력이 復元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全黨대회를 전후하여 자주 거론되어왔었다.

따라서 金총재의 이번 黨職개편은 이같은 우려와 지적을 불식하는 대신 오히려 증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불만을 품은 李萬燮부총재, 趙一濟정책위의장, 李聖秀, 金永光, 金鍾河, 金遺腹의원등이 즉각 黨職사퇴서를 제출하여 반발하고나선것이다.

그들은 나름대로 반발의사연을 갖고있다.

즉 李부총재의경우 黨내외의 여건때문에 총재競選을포기해야했던 억울한심정에 지금까지 2명으로되어있던 부총재자리를 3명으로 늘린데대한 불만이 크다.

또 자신이 金총재에게 전의한 인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큰요인으로 작용한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당내의 분석. 趙一濟정책위의장은 평소 李부총재와 보조를 같이하며 李부총재를 총재후보로 밀어왔다는 사실에서 이번人事에 대한 불만을 덮을수있으며 李聖秀 金永光 金鍾河의원은 지금까지 黨3役을 거냥,맹렬하게 黨職운동을 벌여왔다는점을 상기할 필요가있다.

또 金遺腹의원은 재정위원장에서 非常경제特委위원장이란 閑職 (?)으로 좌천됐고 평소 金총재에게 반발하고 했던 李奉模 당기위원장도 趙顯相씨 (院外)에게 자리를 물러주고 당무위원까지 차지하지 못했다. 여기에 이들 모두가 金총재의 지도노선과 黨운영방향에대해 怏怏不樂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波動의熱病은 쉽게 치유되지않으리란는점을 쉽게 豫見할수있다.

金총재의 이번 黨職개편은 과는 상당한 거리가있는것으로 알려졌다. 金총재의 腹案에 異常信號가 발생하기시작한것은 그가 지난5일 시골로 잠적함으로써 돌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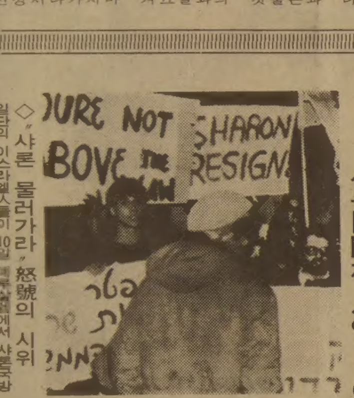
『人事구상을 하고있다』는 등의 각종 소문과 함께 지난8일밤 弘濟洞자택에 모습을 나타낸 金총재는 『목에까지 불쾌감이 찼다』는 말로 人選의 어려움을 호소한후 부터는 소속의원은 물론 일체의 면담도 허용치 않아 그의 곤혹스런 입장 (?)을 대변했고 9일하오에야 인사해당자가 아닌 趙炳九전당대회의장,趙炳奎중앙위의장을 불러 고충을 호소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說往說來를 볼때 이번 黨職개편은 잠정적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金총재가 사석에서 『黨職에 임기가 있는것은 아니다』『다음총선의 책임은 내가져야하지 않겠느냐』고 밝힌점으로 미뤄 黨內에서는 또한차례의 당직개편이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또 그시기가 4월중에 있을 民正黨당직개편 시기와 맞추거나 금년도 정기국회가 끝난후로 보는 견해도있다.

아뭏든 국민당은 金총재가 窮餘之策으로 단행한 人事개편으로 漂流하고 있다. 이漂流를 종식시키고 黨의 단합을 도모하며 85년 총선에 대비한 總力체제를 구축할수있는 방안을 金총재를 비롯한 黨內모두가 합심하여 모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李以春기자】

베긴政權 어디로

샤론國防相 사임…이스라엘의 앞날



◇"샤론 물러가라"怒號의 시위
일단의 이스라엘人들이 10일 예루살렘에서 샤론국방상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통신기자가 이사진을 촬영한 직후 시위군중사이에서 폭탄이 터져 최소한사상자가 발생했다. 【예루살렘10日AP聯合=聯】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국방상 아리엘·샤론은 결국사표를 11일 베긴수상에게 제출하고 말았다.

野圈서"不信任案"압력 早期총선 불가피 할듯

査問委의 조사보고가 발표된후 세번째 비상각의가 열리고 있던 회의장밖에는『우리는 샤론을 사랑한다』『샤론은 물러가라』는 찬·반 샤론데모대의 외침이 뒤엉켜있었다.

이스라엘인들은 샤론을 지칠줄 모르는 아리크 (샤론의 애칭)」 그가 주동한 레바논전쟁을 「아리크전쟁」 이라고 부른다.

샤론은 지금 2차대전후의 맥아더처럼 전쟁을 승리로이끌었으면서도 일선에서 영원히 물러나야할때를 맞고있는지도 모른다. 이스라엘국민의 지와 비난을 한몸에 받고있다.

이스라엘인들은 그를 전쟁영웅이라고 추앙하는 반면에 일부 반대자들은 독선과 아집으로 전쟁만을 일삼아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상 상당수의 국민들로부터 샤론은 민족영웅으로지지를 받고있다.

그러나 샤론은 때때로 고집과 자만으로 말썽을 피워왔다. 지난6개월동안만봐도 샤론은 각의승인없이 독자적으로 베이루트폭격을 명령하는등 군장성들로부터 불만을사 해임위기까지 겪었다. 그러나 베긴수상이 그를 강력히 지지함으로써 고비를 극복해왔다.

샤론의사임을 가장 기뻐할 사람은 레이건 美대통령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중동정책에서 「가시」와 같은 존재인 샤론의 퇴진을 미국은 그동안 희망해왔다. 그가 국방상자리에 앉아있는한 레바논의 외국군철수및 요르단서안과 가자지구의 유태인 정착촌건설중지등 미국의 중동정책은 성공을 기대할 수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샤론해임의 이면에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던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제 샤론을 잃게 된 베긴수상은 자신의 기반을 재정비해야 할 긴박한 입장에 놓였다.

베긴수상은 조기총선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앞길은 순탄치만은 않다.

현재 리쿠드黨 聯政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종교당과 타미당등 소수정당들은 81년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을 우려해 총선거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베긴수상이 조기총선거를 실시할경우 이들 소수정당들은 베긴정권에대한 불신임안을 내게되고 따라서 야당인 노동당이 선거를치르지 않고 정권을잡게될 가능성도 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정치무대에서 수모를당한 국방상은 오직 샤론뿐만이아니다. 67년6일 중동전쟁의영웅 故모세·다얀국방상도 제4차 중동전이 17일만에끝난후 이번 사문위와 성격이 비슷한 조사를받고 국방상직에서 물러났다. 또 50년대 국방상을 지냈던 핀차스·라본도 이스라엘의 비밀공작계획이 노출된 책임을지고 물러났다.

사표를 제출한 샤론에게는 무임소장관직이 주어질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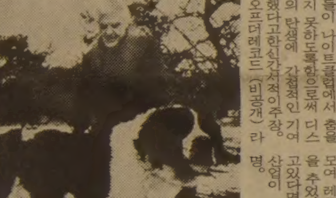
현재 샤론국방상의 후임으로는 베긴수상이 겸직할 가능성, 또는 모세·아렌스 駐美대사가 임명될것이 유력시되고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정치분석가들은 샤론이 이스라엘정치무대의 주역으로서 쉽게 사라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있다. 【崔海雲기자】

디스코誕生에 기여

★히틀러 佛人들 댄스禁止로

아돌프·히틀러는 프랑스인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을추지 못하도록함으로써 디스코의 탄생에 간접적인 기여를했다고한신간서적이주장.

오프더레코드(비공개)라는 제목의 이책은 히틀러가 독일점령치하 파리인들이 춤을 추지못하도록함에따라 이들이 비밀리에 인근동굴에 모여 레코드를 틀어 놓고 춤을 추었다는 문서증거를 갖고있다면서 여기에서 디스코 산업이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 【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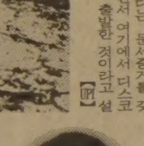


◇체중3百10파운드…돼지만한 개
[illegible]이면 체중이 3백10파운드를 돌파해 현재 세계에서 제일큰개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아버지 베네딕턴을 물리치고 세계제1의 큰개가 될 베네딕턴·제럴드가 주인 토머스·어윈씨와 포즈를 취하고있다. 【그랜드 래피드 (美미시간州) 11日UPI聯合=聯】

海外토픽

印전설적 女산적두목 자수

警察、大學캠퍼스서 投降式주선



◇훌란·데비

인도의 전설적인 여산적 훌란·데비 (27)가 12일 투항할 예정으로있어 인도경찰은 투항식준비에 한창이다.

70명을 살해하고 무장강도 납치등의 혐의로 현상수배를 받고있던 데비의 투항식은 뉴델리 남동 3백㎞지점의 정글에 둘러싸인 소도시 빈드市의 한 대학캠퍼스강단에서 거행될 예정.

데비는 이 투항식 준비를 위해 현재 인근마을에서 힌두교의식을 치르고 있다.

인도경찰은 지난해 7월에도 수천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명높은 산적 말칸·싱과 그의동료 19명의 정식투항을 받아들여 투항식의 선례를 만들었다. 【AP】

稅金으로 核戰모금

★脫稅혐의美國人 체포

탈세혐의로 기소된 가칭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한 사나이가 판사앞에서 미국은 세금으로 핵전쟁모금을 하고 있기때문에 세금을 낼수없다고 큰소리.

레오·볼프(66)란 이 전직 벽돌공은 법정에서 세금이전쟁을 수행하는데 사용되기때문에 자기는 납세를 거부했노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전쟁은 핵전쟁이 될것이며, 당신들의 세금으로 이나라는박살날것』이라고주장.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겐 예레미야로 불리고있다는것. 【聯】

HERALD TRAVEL SERVICE

1983년도 천우여행사 인류고대문명 요람지 탐방 여행안내

에집트·이스라엘·희랍

출 발 : 1983년 4월15일(금)
귀 환 : 5월 7일(토)
기 간 : 23일21박
방문지 : 에집트8박, 이스라엘7박, 희랍5박, 빠리1박
요 금 : $3,600
◉왕복항공료및 지상교통비
◉관광및 입장료
◉숙박 1급호텔(1실2인)
◉식사(대륙식 아침, 저녁–빠리는 아침만)
◉호텔 세금및 팁
신 청 : 등록 – 1983. 2. 28 $500 불입
마감 – 1983. 3. 15 잔액

남 미

출 발 : 1983년 5월14일(토)
귀 환 : 5월29일(일)
기 간 : 16일14박
방문지 : 부라질5박, 알젠틴2박, 칠레2박, 페루5박
요 금 : $2,900
◉왕복항공료및 지상교통비
◉관광
◉숙박 1급호텔(1실2인)
◉식사: 부라질–부라질식, 아취/페루–쿠즈코에서 3식
◉호텔세금및 팁
신 청 : 등록 – 1983. 4. 1 $500 불입
마감 – 1983. 4. 15

중 국

출 발 : 1983년 7월 10일
기 간 : 17일 15박
방문지 : 홍콩1박, 광주1박, 황주2박, 상해3박, 봉천2박, 기차1박, 할빈2박, 북경3박.
요 금 : $3,600
◉왕복항공료및 지상 교통비
◉관광
◉숙박1급호텔(1실2인)
◉식사1일3식(홍콩제외)
신 청 : 등록 – 1983. 4. 29 $500
마감 – 1983. 5. 31

*상기요금은 토론토를 기준으로 함.
*요금은 변동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문의 요망은
HERALD TRAVEL SERVICE
Tel : (416)366-1188 (R) (416)651-8081

SHERATON HOTEL(지하상가)
123 Queen St, W. Toronto M5H 3M9(시청앞)

다른 도시에서도 합류 가능하며, 미국내 교포참여 환영

작년 國校長부인 살해사건

"犯人은 나다" 조카 自首

"도움안줘 앙심… 罪責시달려"

陳述 엇갈리고 當時의 알리바이成立

장물에없던 자수정반지 증거로 내놔

서울道峰區水踰5洞 敎岩국교교장부인 崔玉珠씨(49) 살해사건의 『범인은 나다』면서 崔씨의 이질 文成五씨(28·무직·서울城北區鍾岩2洞105의185)가 경찰에 자수해왔다. 文씨는 사건발생 1백57일만인 10일상오 대구中部경찰서에 출두,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고 범행때 훔쳤던 남자용 자수정반지1개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서울水踰里교장부인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수해온 文成五씨。【大邱—聯】

文씨는 지난해8월말께 崔씨에게 경제적도움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데 앙심을품고 범행했다고밝히고 나머지 장물은 범행3일후 제2한강교 부근 한강에버렸고 범행에사용한 과도는 자신이 세든 경기도富川市셋방부엌에 숨겨두었다고 진술했다.

文씨는 이날 경찰에서 『이모를 죽인데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을 견딜수없어 자수했다』고 자수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직후 유력한 용의자로지목됐다가 알리바이가 입증돼 수사선상에서 제외됐고 이날 증거물로 제시한 반지가 당초 경찰이 수배했던 장물품목에는 들어있지않았던점등을 들어 진범여부를 가리기위해 文씨를 이날오후 수사본부가있는 서울北部경찰서로 이첩, 본격적인 증거조사에나서기로했다.

수사 이사건을 수사해온 서울北部경찰서는 형사대를 大邱에파견, 자수한 文씨를 추궁하고 있는데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밝히고있다.

大邱에서 文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수사관들은 文씨를 일차 심문했으나 장물을 버린 장소와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숨긴 장소등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또 文씨가 훔친 장물들의 하나로 압수된 18금 자수정 반지가 사건당시 작성한 장물품에없었고 피해자 가족들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있으며 특히 유일한 현장목격자인 가정부 尹양이 범인은 푸른색복면을했다고 진술한데 비해 文씨는 『감색 스타킹을 착용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등 文씨의 진술이 사실과 엇갈려 범인이라고 보기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하고있다.

자수 文씨는 10일상오4시께 대구中區東城路2街모아케이트옆 골목의 포장마차에서 술을마시다가 술값1천원을 주지못해 주인과 말다툼끝에 『나는 서울敎岩국교교장부인 살인사건의 범인이다. 나를 경찰에 신고하면 술값1천원보다 훨씬많은 상금을 받을수있다』며 신고를부탁했다. 주인이 믿지않자 근처경찰관방범초소를 찾아가 中部경찰서 소속 전경대원에게 다시 자신이 살인범임을 밝혔다.

文씨는 사건직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알리바이를 조작, 혐의를 일단벗기는했으나 친척등 주변에서 자신을 의심하는듯해 불안했으며 특히 『이모를 살해한데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또 사건후 직장에서쫓겨나 서울·大邱등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구하려했으나 전과때문에 취직도어려워 경제적으로 극도로 쪼들렸다고 주장했다.

범행 文씨가 「주장」하는 범행과정을 보면 사건 당일인 9월6일 상오11시께 주방장으로 일하던 서울永登浦區永登浦洞 대양다방을 나서 서울道峰區水踰5洞519의1 崔씨집을 찾아와 높이2m가량의 담을 넘어들어갔다. 지하실에 숨어있다가 집안사정을 파악한뒤 하오1시45분께 현관문을 열었다. 文씨는 안방으로 들어가려다가 崔씨가 인기척을 듣고 응접실로 나오는 순간 시선이 마주치자 미리준비한 과도를 꺼내 崔씨의 복부를 5~6회 마구찔러 숨지게한뒤 뒤따라 나오던 전가정부 尹成淑양(20)의 등과 어깨를 3~4차례 찔러 쓰러뜨렸다.

文씨는 30분가량 안방과 건넌방의 장롱·문갑등을 뒤져 목걸이·반지등 여자용 모조귀금속 10여점과 함께 문제의 남자용자수정반지 1개와 현금3만7천원이 든 손지갑을 훔쳐 달아났다는것.

文씨는 범행 열흘전쯤 崔씨를 찾아가 내연의 처와 동거할 방을 구할수 있도록 돈 10만원을 도와줄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후 앙심을 품어왔다는 것이다.

文씨는 이미 지난74년 崔씨집에서 강도를 했던 전력이 있었다는것. 지난74년3월 공범 申모씨와 함께 이모 崔씨집에 들어가 혼자서 집을 보고있던 가정부를 흉기로 위협, 현금18만원과 카세트레코더등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다음해12월 경찰에 자수,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었다.

文의알리바이 사건후유력한 용의자로지목됐던 文씨는 사건이튿날인 7일하오2시께 崔씨집에 조문차왔다가 경찰에연행됐다. 경찰에서 文씨는 『사건당일인6일상오8시부터 하오11시까지 주방장으로 일하던 永登浦D다방에서 한발작도 나가지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이 알리바이는 D다방주인 金모씨(53)와 종업원 尹모양(25)이 입증시켜줘 경찰에서 일단혐의가 없는것으로 판단돼 풀려났었다.

文의 주변 文씨는 67년 서울모상업전수학교를 졸업, 다방주방종업원으로전전하다 사건당시 永登浦D다방을 끝으로 사건이후 잠적해 가족들과도 연락이 거의 없었다. 성격이 괴팍해 가족들로부터도 항상 따돌림을당했는데 71년·73년·79년 3차례에 걸쳐 생활고와 가정이 복잡한것등을 비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사건전까지 현집에 주민등록을 올려놓고 생활해온 文씨는 2년전 주민등록지인 鍾岩2洞에서 예비군훈련기피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숨진崔씨는 文씨의 어머니 朴씨와 아버지가 다른자매간이다.

도주 文씨는 범행후 피묻은 과도와 바지등의 핏자국을 세면장에서 물로 씻은뒤 그대로 다방으로 돌아와 과도와 귀금속등을 주방천장에숨기고 태연히 일을했다는 주장.

文씨는 이날밤 일을마친뒤 과도만을 가지고 경기富川의 셋방으로 돌아와 바지등 옷가지는 모두 태워 없애고 과도는 부엌에 숨겼다. 다음날인 9월7일 하오2시께 崔씨집에 문상을갔다가 경찰에 연행됐으나 알리바이를 조작해 혐의를 벗은뒤 3일후 현금과 남자용자수정반지만을 남기고 나머지 귀금속과 손지갑은 제2한강교옆 한강변에서 강물에 던져버렸다는것.

文씨는 남자용반지가 손가락에맞고 의심받지 않을것같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받을때도 이반지를 바지주머니에넣어 가지고 있었으나 의심을 받지않았다고 진술했다.

문제의 반지는 18K 금반지에 놓근 자수정알이 박혀있는데 사건직후 피해품으로 확인되지않아 장물품표에서도 빠져있었다.

文씨는 일단 용의선상에서 풀려난뒤에도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고있는듯한 불안감에 일부러 경찰을 찾아와 행패를부려 담당형사들로부터 5천원, 1만원등을 얻어 쓰기도 했다.

崔씨집 서울道峰區水踰5洞 敎岩국교 교장 姜漳中씨(55)집은 12일낮부터 친지5~6명이찾아와 침울한 모습으로 가족들과함께 집을지키고 있었다.

가족들과 친지들은 文成五씨가 大邱에서 자수했다는소식을듣고 믿을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둘째딸 호진양(21)은 『이종사촌오빠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뉴스를듣고 『成五오빠는 집에 자주들르지 않아 얼굴도 잘모른다』며 말을 잃었다.

한편 姜교장은 이날 敎岩국교에 출근했다가 뉴스를듣고 12시께 『병원에 간다』며 나가 자리를 비웠다.

◇마지막 校服졸업식 10일부터 고등학교졸업식이 시작됐다。졸업생들은 교복자율화조치로 사라지게되는 「마지막교복졸업식」의 추억을 간직하려는듯 교복입은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담기 바빴다。중학교 졸업식은 오는16일 일제히 거행된다。【10일낮 서울 I 고교에서】

不要不急·목적不明이면 旅券발급 않기로

외무부는 무분별한 단체해외여행을 억제한다는 정부방침에따라 앞으로 해외여행자에대한 여권심사를 강화할방침이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10일 『不要不急한 관광성 단체여행을 억제하기위해 여행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여권을 발급치 않을방침』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는 해외여행자유화 정책에 역행하는것이 아니라 이를 惡用하여 나타날수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

외무부는 앞으로의 규제방안으로 ▲국제회의및 세미나참석자의 자격여부를 가리기위해 학력과경력등을 검토하고 ▲단체여행일경우 여권신청자의 단체가입시기를 명기토록하여 단체가입후 일정시기가 되지않은사람에 대해선 여행을 억제토록하며 ▲聖地순례를이유로한 관광여행을 막기위해 종교단체의 여행자에대해선 소속敎團이나 종단책임자의 추천서를 첨부토록하는등의 방안을 고려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지난1월에 문화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한 사람중 2백60명에대해 관광성여행이라고 판정, 여권을 발급치 않았다.

외무부는 또 해외여행자들이 사치품을 반입치 않도록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千萬円 밀반출企圖 한국계 日本人입건

金浦세관은 10일 일화 1천만엔을 몰래숨겨갖고 나가려던 한국계 일본인 星山鎬康씨(62·일본東京거주)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세관에 의하면 星山씨는 이날상오10시 KAL 704편으로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항공사에 부친 여행용가방속에 일만엔권 4다발(4백만엔)을 선물용김으로 위장했다가 세관X선검색기에 의해 적발됐다.

세관은 이어 星山씨의 몸수색을한결과 몸속에서도 은박지에 포장된 일화6백만엔을 찾아냈다.

中日신문 加藤사장 故張基榮社主 墓참배

「한국 고대 문화전」의 일본전시협의를 위해 내한중인 일본 쥬니찌(中日)신문 가또(加藤巳一郞)사장이 10일 상오 경기도 廣州郡 東部面倉隅里에 있는 고張基榮한국일보社主의 묘소를 참배, 고인을 추모했다.

母女살해·放火犯 검거

12년전 貰들었던 20代 전과자

高尺洞

◇범인 金東壽씨

서울 九老경찰서는 10일金東壽씨(21·전과4범·서울江西區新亭3洞117의15)를 살인방화및 사체유기등의 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金씨는 9일상오 10시께 서울九老區高尺2洞253의203趙潤熙씨(46·상업) 집에 들어가 혼자 부엌에서 설겆이하던趙씨의부인 鄭榮씨(42)의 뒷머리를 미리준비해간 쇠망치로 마구때려 숨지게한뒤 이어하교에서돌아와 쓰러진 어머니를보고 우는 趙씨의장녀恩卿양(11·細谷국교5년)을 목졸라 살해했다가 하룻만에 경찰에 검거된것이다.

金씨는 모녀를 해친후 안방에 있던 鄭씨의 핸드백에서 현금2만3천원을 빼앗고 모녀의 시체에 옷가지등을 덮어 불을 지른뒤 대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金씨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뒤 거리를 배회하다 귀가했다가 범행14시간30분만에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는것.

金씨는 경찰에서 파출부로 일하다 2개월전 중풍으로 그만둔 어머니(52)가 이웃에게진빚 10여만원을 구정이되도록 갚지못해 심한 빚독촉을받고 『눈이나 콩팥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겠다』는데 충격을받고 금품을 훔쳐 대신 갚겠다고 결심, 세면용 핸드백에 망치를준비해 12년전 함께 세를산적이 있는 趙씨집에 찾아갔으나 숨진鄭씨가 자신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 순간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Y중1년을 중퇴한 金씨는 자가용운전사(56)의 2남1녀중장남으로 중국집배달원, 일일시험지배달원등을 전전해오다 지난80년12월 순화교육을받던중 폐결핵으로 중도출소, 지금까지 집에서 놀면서 요양중이었다.

한편 경찰은 金씨집에서범행에 사용한 쇠망치, 범행때 입은 운동복, 쓰고난현금 1만8천원등을 찾아내 증거물로 압수했다.

숲속에 처녀變屍

甘田, 알몸으로 목에 스카프걸려

【釜山】지난 9일 하오4시40분께 부산시北區甘田洞산10 숲속에서 18세가량의 처녀가 알몸으로 숨져있는것을 부근에 사는 김화종씨(5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키1백60㎝의 긴머리형의 변사자 신원을수배하는한편 스카프가 목에 걸려있는점으로 미뤄 타살로 보고 수사중이다.【聯】

中·南部지방 大雪

國道등 40여곳 交通두절

【地方綜合】영·호남및 충남지방에 많은눈이내려 10일상오8시현재 국도및 지방도40여개소의 교통이 두절되고있다.

이시간 현재 평균 강설량은 경남 서부지방 10㎝, 경북12㎝, 전남8㎝, 충남9㎝를 각각 기록했다.

이같은 폭설로 경남지방의 경우 居昌—咸陽간등 20개국도및 지방도가 교통이 두절됐고 경북지방도 英陽—盈德, 青松—永川, 青松—安東등 11개도로가 통행이 끊겼다.

또 전남지방은 光州—和順간 너릿재터널등 8개국도와 求禮—南原간등 3개지방도가 통행이 제한됐고 충남지방은 錦山—茂朱등 2개국도와 瑞山—음암간 지방도가교통이 통제됐다.【聯】

男便대신 獄살이 女人

無罪선고 原審확정

대법원형사부는 10일 남편의 살인혐의를 덮어쓰고 대신 옥살이를 했던 金漢淑피고인(22·경남梁山郡東面石山里274)에 대한 살인사건상고심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金피고인은 구속된지 3백37일만에 수감돼있던 馬山교도소에서 풀려났다.

金피고인은 지난해 2월17일 친구석한설양(당시21세)을 저녁식사에 초대, 미역국에 극약을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6월 1심 釜山지법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金피고인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인 大邱고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당초 범인으로 구속됐던 남편 李大雨씨(28)를 구하기 위해 허위자백한 것이란』고주장, 재판부에 의해 사실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었다.

이에 검찰은 『비록 金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것은 아니지만 살해를 공모한 혐의가있다』고 주장,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도박面직원 5명구속

慶山南川 農協직원등 6명은 立件

【大邱】大邱지검특수부 朱光逸부장검사는 10일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경북慶山郡南川面 총무계장 崔相哲(38) 산업계장李春甲(39)씨등 면직원 5명과 전南川面三省1동장 金수오씨(35)등 모두 6명을 상습도박혐의로 구속하고 慶山郡농촌지도소 南川지소장 鄭根述(35)씨등 6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18일부터 지난해12월4일까지 50여회에걸쳐 면사무소 인근식당과 가정집을돌며 하루밤에 50만원에서 1백80만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화투판을벌여 그동안 모두5천여만원이 오가는 도박을 해왔다는것.【聯】

肝큰 女경리직원

2億8千萬원횡령

不動産등에投資

【大邱】속보=회사공금 9천만원을 횡령한 모유업 대구영업소 여경리직원 吳相貞양(25·大邱市壽城區黃金洞황금아파트 138동 402호)의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대구동부경찰서는 18일吳양이 회사공금 1억8천9백여만원을 더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吳양은 지난77년5월부터 동회사 경리를 담당하면서 지난해12월말까지 경리장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금액을 고치는 수법으로 24차례에걸쳐 회사공금 1억8천9백50만원을 빼돌렸다는것.

吳양은 빼돌린 회사공금으로 대구시東區新興1洞에한옥(건평24평) 1채를 비롯,

「문화재醫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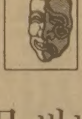
遺物 保存학자 李午熹씨

세동강난 伽倻大刀 반년걸려 復元

문화재를 발굴하면 처음엔 형태를 알아보기가 힘들다。특히 鐵이나 나무로된 문화재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하잘것없는 하나의 쇳조각이나 나무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각도 문화재보존과학자인 李午熹씨(36·사진)같은 사람의 손을거치면 생명력을 되찾고 가치가 대단해진다。

「문화재의사」인 李씨의 직함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전문위원。국내에 20여명밖에 안되는 보존과학자의 한사람으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철기·청동기유물을 복원하는 일을한다。



녹슬고 훼손돼 형체를 알수없는 유물을 복원하는 일은 쉬운일이 아니다。유물을 인계받으면 우선 문헌등을 밤새워 뒤적거리고 영감을 동원한다。

복원작업은 사진촬영、카드작성、X레이를 통한 재료및 성분 분석등 예비조사를 한다음 드릴러등 소도구로 녹을 벗겨내고 세척·건조·끝손질까지 7개과정에 걸쳐 작업을 한다。

길게는 3년이나 걸리는 지리한 작업이지만 공들인 보람도 없이 영원히 옛 모습을 더듬어 볼수없는경우도 생긴다。

李씨가 「문화재의사」가 된것은 75년부터다。71년 국립중앙박물관 고용원으로 유물관리를 하다 중요한 문화재가 부식돼가는 것을 보고 보존과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75년 東京문화재연구소에 유학、이론적바탕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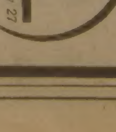
李씨가 그동안 한 작업중 가장귀중한 것은 高靈池山洞 가야시대고분에서 발굴한 銀象嵌唐草文鐶頭大刀의 복원이다。3조각으로 조각난데다 온통 녹슬었던 것을 복원한것은 물론 정밀복원 작업을 통해 칼자루에 은으로 상감된 唐草文을 확인、그대로 살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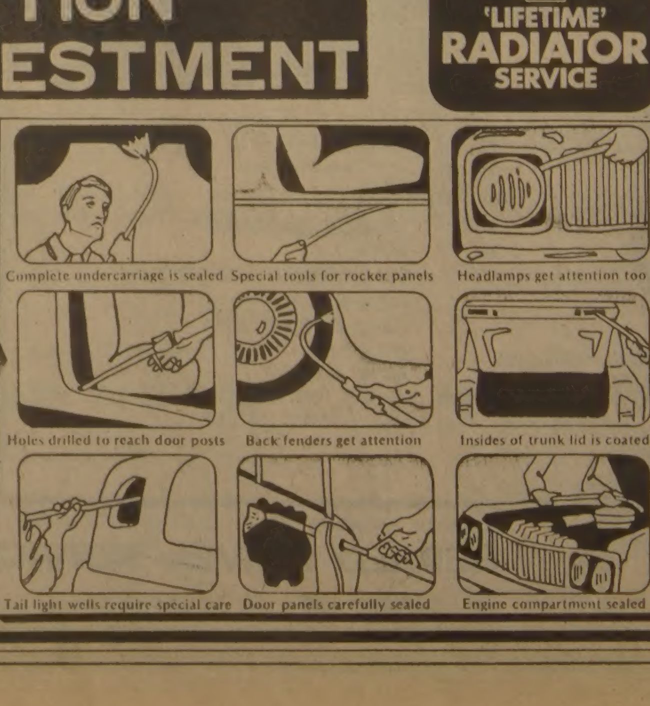
『유물복원작업을 할때는 중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마음을가져야 합니다。高靈에서 나온 칼한자루를 복원할때도 6개월동안을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니까요』

그의 연구실은 「의사와 같은 마음」이란 말이 아니더라도 X레이기、산소통、각종화공약품에다 드릴러등 소도구까지 고루 갖춰 영락없는 병원이고、그안에서 길게는 몇천년전부터 병이들은 문화재의병을 치료해가는것이다。【朴珍洌기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교포운영업체-
VITAL®
NEW & USED CAR
RUST PROTECTION
PROTECT YOUR INVESTMENT
VITAL
'LIFETIME'
RADIATOR
SERVICE
자동차는 귀중하고 값 비싼 재산
녹쓸지 않고 오래 보존하도록 보호합시다.
⊙교민 특별가격봉사
COMPLETE RUSTPROOFING &
UNDERCOATING SERVICE
VITAL CENTRE—ETOBICOKE
6590 FINCH AVE. WEST REXDALE, ONT. M9V 3Z6
741—2701





고삐풀린 朴贊淑 東邦코트 유린
太平洋 대망의 4連覇

女子실업농구 聯盟戰폐막

제5회 전국여자실업농구연맹전은 太平洋化學이 4連覇를 차지한 가운데 10일 文化체육관에서 폐막되었다。이로써 太平洋은 제4회대회가 유산되어 이대회1회부터 내리 석권하게 되었다。

太平洋은 수비에서 朴贊淑·權明婦가 두터운 장신벽을쌓아 東邦生命의 金和順·吳順珠의 공격을 무력하게만들고 공격에서는 朴贊淑의 눈부신 활약과 車仙鎔이 사이드 숏으로 東邦을 73-55로 제압, 우승을 거두었다。

이대회에서 太平洋의 朴贊淑은 최우수선수, 東邦의 金和順은 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결승전치고는 허망한 한판이었다。李美子가 빠진 東邦은 전력이 약화되긴했지만 太平洋의 장신벽에 속수무책, 전반에 승부가 가려지고 말았다。

太平洋은 맨투맨을, 東邦은 존으로 太平洋의 장신을 견제했는데 朴贊淑을 맡은 吳順珠와 팀플레이의 구심점인 金和順이 전반에 4반칙을 범해 東邦은 결정타를 맞았다。

東邦은 10-10으로 처음타이를 이루었을뿐 車仙鎔·朴贊淑의 숏을 감당하지못했고 존처럼 太平洋의 3·2존을 깨지못했다。

반면 太平洋은 東邦 吳順珠·金和順이 4반칙으로 수비력이 약해진틈을타 朴贊淑이 중앙돌진으로활약하고 車仙鎔이 사이드숏으로 가세, 점차를 벌렸다。

東邦 孫英淑의 숏이 호조를 보이며 잠시 추격하는듯했으나 주득점원인 金和順의 숏이 불발해 太平洋은 전반에서 45-30으로 크게 앞섰다。

후반에 들어서자 朴贊淑이 장신의 진가를 발휘, 공·수에서 짜임새를 잃은 東邦을압도했다。

東邦은 프레싱으로 太平洋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다했으나 洪英順과 朴贊淑이 東邦의 프레싱을 쉽게 뚫어 후반4분께 53-34, 스코어가 19점차로 벌어졌다。

◇최종일결승전

태평양화학 73 (28-45, 25-30) 55 동방생명

◇개인상

▲최우수선수=朴贊淑(태평양화학) ▲우수선수=金和順(동방생명) ▲감투=鄭智惠(선경) ▲공헌=方信實(외환은행) ▲모범=孔賢子(국민은행) ▲미기=金亭淑(코오롱) ▲득점=朴贊淑 121점 ▲인기=金銀淑(보증기금) ▲지도=申東坡(태평양화학) 崔京德(동방생명)

◇키다리 숲에 갇힌 東邦 金和順 이 東邦生命의 주득점원 金和順이 太平洋化學의 權明婦·車仙鎔이 편 장신수비벽에 묶여있다。太平洋이 73-55로이겨 우승했다。

◇동계훈련의 첫 코스로 택한 儒城온천지에서 83년 시즌을 위해 몸을풀고 있는 MBC 靑龍。【儒城=高明辰기자】

소피아 冬季 U大會출전
한국팀 오늘 壯途에

83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18~27일·불가리아 소피아)에 출전하는 한국대표선수단이 11일밤 KAL편으로 떠난다。

◇한국선수단

▲단장=金相謙 ▲총감독=朴甲哲 ▲섭외=文潤弼 ▲경기=尹康老 ▲조사연구원=金勳 學 蔡洙東 權海老 李仁淑 ▲아이스하키코치=申浩慶 金世一 ▲선수=韓仁燮 崔源植 金成哲 黃景培 金聖勳 白雲盛 金增泰 韓圭俊(이상고려대) 李在運 金成淳 金漢洙 李庚動 金正圭(이상 연세대) 金仁鍾 黃圭植 金珍中(이상경희대) 李煥撰 金英燦 朴殷圭 禹相卓(이상광운공대) ▲스키코치=任敬淳 康燦金 ▲선수=朴炳魯(경희대) 朴載赫(고려대) 金東煥(단국대) 金甫南(국민대)

533-2361

「겨울이 없다」

—프로야구 强訓현장을 가다

MBC靑龍 ㊤

오는16일은 靑龍의 경우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이다。스타軍團 MBC靑龍이 프로야구정상정복을위한 鎭海전지훈련을 개시한지 20일。전지훈련장으로 떠난후 처음으로 靑龍선수들은 구단측의 배려로 鎭海현장에서 가족과 해후를 갖게 되었다。

『놀고 쉬면서도 이길수만 있다면 누가 땀흘려 이고생을 하겠읍니까』

연초 구단과의 감정싸움을 씻어버리고 다시 팀지휘봉을 잡은 白仁天감독은 상륙작전을 지휘하는 일선 소대장처럼 靑龍의 선두에 나서 선수들을 독려하고있다。앞장서 달리는 白감독의 서슬에 누구하나 불평하고 꾀부릴 틈이 없다。

白감독이 말하는 동계훈련의 역점은 바로「한해를 쉴새없이 달릴수있는 체력양성」이다。겨울에 땀흘린만큼 여름에 성과를 거두게 마련이다。

1월5일 처음 동계훈련을 시작한 MBC는 24일 鎭海로 내려올때까지 儒城과 서울南山에서 82년시즌의 피로를 모두 씻어냈다。

1월5일부터 11일까지 儒城 온천물로 몸을 풀며 선수들은 다가올 새해시즌에 대비, 정신자세를 가다듬었다。이기간동안 선수들에게 던져준 白仁天감독의 과제는 다음 3가지다。첫째 자신과의싸움에서 이겨라。둘째 동료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라。세째 상대팀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12일부터 24일까지 南山의 가파른 기슭을 달리는 기초체력 훈련이 실시됐다。

상오에는 하체와심장을 튼튼히 하기위해 산길을 달렸으며 하오에는 유연성을 기르기위한 체조, 그리고 웨이트·트레이닝이 반복되었다。

鎭海에서 시작된 훈련은 체력단련과 팀웍, 기본기 연습이 혼합된 것이다。새벽찬공기를 마시며 선수들은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아침식사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강도 높은 훈련이 실시된다。3개조별로 나뉘어 타이어끌고 달리기, 러비공 패스하며 달리기, 토끼뛰기경주。공을 떨어뜨리거나 꼴찌한 조는 처음부터 다시 그 프로그램을 반복해야한다。

하오1시30분부터는 실기훈련에 들어간다。새로입단한 국가대표급 아마추어선수들에게 나무배트의 배팅감각을 하루빨리익히도록하는 것이 가장급한 과제다。

主戰투수 5명 日파견
中日캠프서 합동훈련

해외전지훈련을 포기했던 MBC의 투수들은 이름이 같은 日本프로팀 쥬니찌(中日)드래건즈의 초청으로 좋은 훈련경험을 쌓게됐다。MBC靑龍은 82년 센트럴리그우승팀 쥬니찌와 정식 계약을 맺고 20일부터 10일간 河基龍·柳鍾兼·吳氏日 李光權·李吉煥등 5명의 투수와 柳永洙·韓東和 코치를 규우슈우 구시마(串間)의 쥬니찌트레이닝·캠프로 파견키로했다。

MBC는 3월1일부터 베이스·캠프를 淸州로옮겨 실전을 위한 마무리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方錫鎬기자】

WBC라이트級 챔피언 아르게요 12月은퇴선언
아들과 約束지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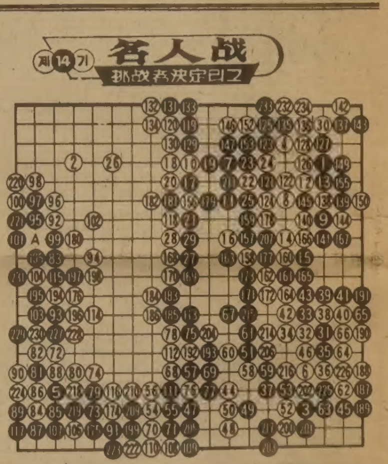
【스코츠데일(美애리조나州) AP=聯合】프로복싱WBC(세계권투평의회)라이트급 챔피언인 니카라과의 알렉시스·아르게요(30)는 9일 최초로 4체급을 석권하려는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10살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년 12월 권투를 그만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鄭求善·嚴泰燮 三美팀에 入團

프로야구 三美 슈퍼스타즈는 아마야구 국가대표팀 내야수 鄭求善(한화)을 스카우트, 10일 계약금과 연봉 각 1천8백만원씩으로 입단계약을 끝냈다。

한편 三美는 지난7일 롯데자이언츠의 방출선수인 외야수 嚴泰燮을 연봉 1천1백만원으로 받아들여 팀전력을 보강했다。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總譜 234手完 (각5시간·덤5집반)

白(4段)李相勳〈1勝2敗〉

黑(6段)張秀英〈3勝0敗〉

張6段、단독선두

【黑3집반勝】이로써 張6단은 단독선두에 나섰다。별표에서 보듯이 徐奉洙7단과 姜勳4단이 뒤를 쫓고있어서 속단키 어려우나 우선 이들3명의 승률에서 張6단이 우위에선것은 사실이고 특히 徐7단에게는 最高位戰 도전자결승에서 패승했으며 과거 중요한 바둑에서도 張6단이 곧잘 승리한 때문에 예상점수를 많이 따고있는 형편이다。

이바둑에서 白의 패인은 白54가 과하여 44、48、50등 3점을 잃은데에 있다。다음 좌하귀 黑79、81이 위축된 때문에 白84이하가 성립되고 92、94로서 白도 유망해졌는데 좌변 黑을 白96으로 늦춰주는 바람에 승기를 놓쳤다。96은 「A」에 젖혀야 했던 것이다。한편 黑은 마무리 단계에서 黑121 이하가 교묘했고 그후 빈틈없는 끝내기로승리를 굳혔다。

本人 相對	徐	張	姜	河	盧	旭	李	勝	敗
徐奉洙7	■				○	○		2	0
張秀英6		■		○	○		○	3	0
姜勳4			■		×	○	○	2	1
河燦錫7		×		■			×	0	2
盧永夏7	×	×	○		■			1	2
徐能旭6	×		×			■		0	2
李相勳4		×	×	○			■	1	2

148… 138。1 51…14 5。154 …138。 208…1 45。21 2…121 213…1 50。 【一凡】

꿈과 믿음

길 ◇韓景職◇

꿈을 꾸는자는 많다。그러나 그꿈을 이루는이들이 얼마나 될까。여기에 인간삶의 허전한 면이있다。꿈을 이루지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것이다。그가 사는 환경, 그가 사는 시대 또한 그자신의 여러가지 헛점도 없지않을것이다。어떤이는 건강이 나쁘다。어떤이는 의지가 약하다。여러가지 가정적, 사회적 원인도 없지않을것이다。

그런데 성경가운데 히브리서11장을 읽으면 고대 히브리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온갖 역경과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크게 성공한 다시말하면 꿈을이룬 많은 용사들이 열거되었다。그들은 다른시대 다른 환경 온갖 고난가운데서 모든것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였다고한다。무엇으로? 믿음으로。믿음으로 많은 난을헤치고 그들은 삶의 승리자가 되었다。꿈을 이루었다。

예수께서는 흔히 환자들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할때에『내가 능히 이 병을 고칠수 있는줄 네가 믿느냐』고 물으셨다。『그렇습니다。내가 믿습니다』대답할때에『네 믿음대로 되라』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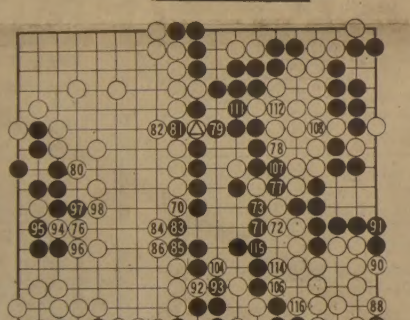
한번은『할수 있거든이 무슨말이냐。믿는자에게 능치 못할것이 없느니라』말씀하실때도 있었다。꿈만은 부족하다。그 꿈을 뒷받침하는 큰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 第9譜 170~217 (각5시간·덤5집반)

白(4段)李相勳〈1勝1敗〉

黑(6段)張秀英〈2勝0敗〉



白 追擊허사 憤敗

이 바둑은 결국 白이 3집반을 분패했다。따라서 본보의 과정에서 연이 차를 줄일수는 없었을까, 염두에 두고 끝내기싸움을 보아가기로 한다。白70까지로 망망대해같은 영토를 마련했지만 그저 집차가 줄었을뿐이지 역전까지 미치지못하고 게다가 선수는 黑이 갖고있다。

실은 黑도 이식전에서 정말로 역전될지모르니 불가불 초긴장이다。그렇다면 여기서 승리를 아주 굳혀볼까。예하여 黑71로 107자리를 들여다 본는 수。그러면 자연 白108의 곳에 패가나는데 白은 살려고하는 제자리패감이 많아서 黑만 자치 손해를 보게된다。결국 黑71쪽서 부터 73。張6단은보상을 여러번 되풀이한끝에 모험을피했다。물론 이것으로 승리를 확신한것이다。

한편 李4단은 끝내기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았다。白74로 黑75와 교환한수가 그것。이런곳은 뒷날 白가하는 끝내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 버렸단 얘기다。

미세한 국면인만큼 극후검토때 주거리로 지적된것도 무리는아니다。白76이 마지막 남은 큰끝내기。다음부터 잔끝내기인데 서로가 피장파장격으로서 역전될 만한 곳은 발견되지않았다。

黑117까지 아리송했으나 수는없었고, 결국 黑이 정확한 목산으로승리를 굳혔던 것이다。白118이하는 총보로。113…슈。【一凡】

張吉山

黃晳暎 作 崔然石 畫 <1963>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23)

『여기서는 모든 업고를 스스로 바로잡고 고쳐야만 합니다。아무도 도와줄수가 없소이다。먼저 이제껏 살아온 모든일을 미륵님께 고하시오』

노인은 영문을몰라서 여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여환은 다시 맞은편의 노인과 비슷한 연배로보이는 사람에게 물었다。

『어째서 칠성암에 오셨소?』

그는 곁의 노처를 돌아보았다。

『이사람이 신병(神病)이 들어서…』

노인의 아내는 몸이 가랑잎처럼 여위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술은 까맣게 죽어 있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예…미리 알수가없지요。아무때나 발작을 합니다』

『어디 삽니까?』

『시내비골이오。저 임서방과 이웃 간이지요。저는 이응남(李應男)이라구 합니다』

여환은 다시 다른이들에게도 그런식으로 묻고나서 말하였다。

『세상살이의 어려움이 우리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였고, 마음을 건강하게 갖지 않으면 몸의 병도 낫질않습니다。칠성암에 오셔서는 누구든지 여태껏 살아온 기쁘고 슬픈 일을 미륵님과 향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짓없이 털어내어 맺힌 바를 풀고 위무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야합니다。그런 연후에 부지런히 수도하면 병은 쉽게 낫지요』

원래가 병이 있어 굿을 하려는 이는 무당의 신들린 푸념을 빌어 자신의 포한과 아픔을 풀고 달래려는 것이니, 여환이 병낫기를 원하여 찾아온 이들에게 포한을 털어놓으란 것 또한 그와 다름없는 이치였다。실제로 몸도 건강하여지고 쾌활하게 일하는 마을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칠성암미륵의 권능을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는…연천서 남의 고공살이로 컸읍니다』

풍병 걸린 임 노인이 더듬거리며 입을 떼었고, 사람들은 모두 밤바다에 시선을 주고 그의 말을 들었다。

『혼란의 병화가 가시질않아서 부모들이 저를길에다 버렸기 때문이지요。법에 따라서 저를 거둔집에서 다섯 살부터 잔일과 나무하기로 밥을 빌어먹었읍니다。부모가 찾으려고만 했다면 곡식을 배상하고 돌려 받을수도 있었겠지만 목숨이 산것만도 다행이지요。버려져서 길러준 집에 매인 몸이라 그쪽의 성을따라 입안이 되었읍니다。다행히 양민이라 사천(私賤)은 모면하였는데 명색이 그집자식이고 실상은 머슴이었읍니다。그러니 새경은 한 톨도 못 받았지요。스물 세 살이 되어서 그 댁에서 나와 처음에는 포천서 머슴을 살았읍니다。새경을 받아서 논두마지기를 장만할 수가 있었고 지금의 아내도 저와 비슷한 처지라 관가에서 물긷고 빨래하며 잡일을 하는 급비였지요。우리는 부지런히 일하여 그런대로 굶지않고 살았읍니다。슬하에 자식을 셋이나 낳았지요。예전 경술년 큰 흉년이 있을제 우리도 남들처럼 먹을것이 없어서 갈라진 논밭 팽개치고 대처를 찾아 나섰읍니다。읍내마다 죽이나 풀어서 명맥을 겨우 이을 정도로 주는데, 죽솥 앞에서 그릇을 든채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지요。저는 그때 우리 부모가 어떤 참경을 겪었는가를 알았읍니다。저도 길에 버려졌지만 내 아내도 젖먹이를 숲에다던졌읍니다。울고 보채고 하는데 업고 다닐 기운조차 진해버린 것이지요。』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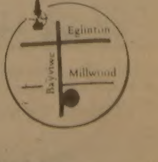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실비아·윈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전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 =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여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금: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a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자동차 수리 (파타임)
수리 일체에 관한 일
전화 : 291-4547 Mr. 윤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광고문의 533-2361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황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식자 기술을 배우실 분.
◉본사서 유급 훈련함.
◉Full Time or Part Time
◉영문타자 능숙자 우대.
전화 : 533–2361 한국일보사(Mrs. 강)

입주하셔서 가사 돌보아 주실 할머님 구함.
Jane & Lawrence 지역.
전화: 244–2301(오전7시–저녁7시 사이)

Multi–Million달라 Herbal 화장품회사에서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쎄일즈 하실 분을 구합니다.
◉안정성있고, ◉자신의 비지네스고,
◉수입이 좋은 회사에서 트레인을 시킴.
전 화 : 364–8932

도넛숍 여자 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Mrs. 김

스토아 파타임 남자헬퍼 구함.
낮에 일할 분.
전화 : 488–1634 (저녁 6시 이후)

출퇴근하며 유치원다니는 남아(5세) 돌보실 할머니 구함.
시간 : 11시~오후5시까지(주중만)
전화 : 487–8665 (오후4시 이후)

풀타임, 가발 만드실분 구함.
다운타운 위치, 커다란 가발회사
남자 가발 만드는데도 경험이 있어야 함.
색갈도 들여야 하고 가발 바느질 잘해야함.
영어를 할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함.
전화 : 977–1122 Mr. SCIARA

3살, 4살된 두아이 봐주실분 구함.
Jane × Eglinton 근방
전화 : 247–0643 Mrs. 하

자동차 세일즈맨 구함.
다운타운에 있는 커다란 General Motors 차딜러에서 새차 쎄일즈맨 구함.
회사차와 의료보험및 여러가지 혜택이 있음. 유경험자 원함. 전화: 964–3211 Mr. M. Tubby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가죽자켓과 핸드백 만드는곳(내방 바람)
Wolff of Canada(68 Broadview Ave. 2nd Fl.)

작은 버라이어티 가게와 방5개 달린 건물.
이 두 건물을 맡아서 운영하실분 구함.
20년된 가게이고, 운영부진으로 주매상 $3,000.
스카보로 지역. 학교와 아파트 동네.
약간의 보증금. 현재 여자 혼자 운영 가능함.
전화: 266–7958(오후12시 이후)

4 Bed Rm 타운하우스에서 같이 지낼 독신 여자분 구함.
Hwy 401 × 빅토리아파크. 월: $170.–
전화 : 449–1913 Mrs. 채

맥스 밀크에서 일할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저녁에 일함.
전화 : 221–9051

KOREAN UNIVERSITY STUDENT
Graduates or near graduate person are required to represent an international Canadian company on Korea. Must have a high level of energy and dedication and be specializing in Business and Commerce.
There will be an intensive training program in Toronto and will in future be promoted to a technical representative in Korea. An attractive renumeration package in U.S. Dollars is available to the successful candidate. Mr.Sciara 977-1122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티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아담하게 꾸며진 미용실이 딸린 3층건물 팝니다.
서브웨이에서 1 Block
전화: 463–7423(B), 461–3363(R)

쇼핑가에 위치한 Fruit & Vegetable &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코자 함.
자세한 문의는 전화 690–6572

헐리우드 복덕방 리스팅
◉2층 4베드룸, 부엌 2개, 목욕탕 4개, 차고 2개 넓은 파킹 Lot.(로얄욕×에그린톤)
전화: 746–4360 JOE DI LILLO
◉Fast Food 비즈네스 달린 빌딩(영×리치몬드)
비즈네스와 부동산 $550,000 또는 비즈네스 $200,000+스타+렌트
전화 : 746–4360 Joe Tanzos
◉Gift Shop(캐나다스 원더랜드 근방 플라자내)
아스킹 : $22,900 전화 : 746–4360 Mr. TANZOS
Hollywood Real Estate Ltd.

1)Bloor St. 써브웨이 코너
8층+1 사무실 붙어있고+아파트. $850,000
아스킹: $200,000 다운
2)11개 스토아 플라자. $107,000 net net annual income
3)스토아+Gas Bar. 1.3에이커. $370,000. 25% 다운.
Doris Burda 763–5555 Cholkan Real Estate Ltd.

레스토랑과 타번 매매
Burlington 다운타운에 있는 좋은 자리. 리스: 17년 6,000 Sq. Ft. 전화: 823–6984 Louis Battista

▲모텔: 나이야가라 지역. 13 Units.
35 Units 과 237 의자있는 타번.
49 Units–높은 소득. 135 Units–좋은 장래.
▲타번: 400 의자–높은 인컴. 110 의자–좋은 지역.
Century 21. Darel Properties Inc. Member Broker.
Niagara Falls, Ont. 전화: (416)356–2121

여자용 옷 가게하시는 분에게 각종 여자 부라우스, 스웨터, 드레스및 진 동 아주 싼 가격으로 양도코자 함.
전화: 967–4461 Mr. 용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3447 St. Clair Ave. E.(at Birchmount)
전화: 265–9000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2 Restaurant & Taverns
1. Dining Rm.–150명 수용. 쇼핑센타에 20개 가게 있는 위치. Banquet Hall도 포함. 200명 수용. Banquet이 한달에 3번 이상 예약이 되고 현재 83년6월까지 예약돼 있음. 레스토랑은 리스가 길고 렌트 낮음.
2. 빌딩과 2 아파트. Dining Rm. 자리가 70개.
Banquet Rm. 69. Lawrence & Weston Rd.
전화 : 251–4656 Mr. William Matevich
Albany R.E. Ltd., Realtor

쇼핑 Mall에 있는 Fast Food
◉햄버거. 주매상: $3,500 Brampton
◉Nuts & Fruit 주매상: $2,000 미시사가
◉도넛숍, 샌드위치 주매상: $1,500 스카보로
◉햄버거 & Deli. 주매상: $4,200 노스욕
◉커피숍. 다운타운 주6일
전화 : 593–8967 Joseph. Patrick Ho Real Estate

잘 알려진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60개 이상의 스토아를 가진 쇼핑몰에 있음.
경쟁자 없으며 한주인이 6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음.
지하층에 볼링장, 2층 3층에는 의사·변호사등의 사무실이 있음. 관심있으신 분은 주인과어포인트먼트요함
전화: 827–7057(오후5시~8시사이) Mr. 최

버라이어티 스토아 OPEN하실 분.
윈저 다운타운.
전화 : (416)421–6277 Mr. 박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2 Bed Rm. 아파트 렌트(써브렛) Eglinton & Danforth Rd. 주차비포함 월 $360. 3월1일 입주가능. 조용하고 깨끗한 아파트. 전화 : 267–8182 Mr. 양

1 Bed Rm. 아파트 렌트.
Sheppard & Birchmount. 독신녀에 한함. 월 / $125.
전화: 292–5280(오후3시반 이후) Mrs. 유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자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하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런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방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바이킹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신년도

-재고정리-

앵콜대세일

구정을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과 아울러, 소원성취를 기원 합니다.
저희 럭키 Drapery에서는 재고 정리차
아래와 같이 대세일을 하고자 합니다.

- **READY MADE**
  쎄일가격에서 15% OFF
- **STOCK BLIND**
  45%OFF
- **CUSTOM BLIND**
  30%OFF
- **CUSTOM MADE DRAPERY**
  종전과 같은 쎄일가격

4141 DIXIE RD.
ROCKWOOD MALL (딕시×버남돌프)

LUCKY DRAPERY

☎ 625-0698